信 心과 精誠으로 靑銅文化의 脈을 이어가는 匠人들의 作品
불상 · 탱화 · 범종 전시관
전화:02-735-1045 / 팩스:02-735-2344

현대불교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8년(서기 1994년) 12월 1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보시를 했다고 하여 은혜 갚기를 바라서는 안된다.
〈열반경 범행품〉

법회 안내

정중선원 (02)573-8506
원각경 강좌 매주 수 오후1시
금강법회 매주 월 오전10시30분
창선원전공부 매주 화 · 목 · 토 오후2시
인등기도법회 매월 초하루(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학림사 (02)936-1700
초하루법회 매월 초하루(음)
오백나한법회 매월 보름(음)
지장기도법회 매월 18일(음)

학림불교회관 (02)932-141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5시
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법련사 (02)733-532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부 법회 매주 수 저녁 7시

대각사 (02)765-0972
합창단법회 매주 월 오후1시
어린이법회 일 오전 10시15분
하생법회 매주 일 오후1시
청년법회 매주 화 저녁7시30분

충북한마음선원(0446)877-0462
정기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 오전 10시30분
한마음요전공부 화 오전 10시경분
정진법회 매월 초하루, 보름(음) 오전 10시30분
어린이법회 일 오전 10시30분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법회 매주 수 저녁7시30분

목포 보현정사 (0631)76-1730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학생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부법회 매주 수 저녁7시
일반교리강좌 매주 일 오전10시

포항 죽림사 (0562)47-4688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주 수 저녁8시
교사회법회 격주 월 저녁8시

※ 이난은 각 사찰의 법회 소식을 알리는 난입니다.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소속·성격 명문화하라"

조계종 새 집행부 선학원에 요구

8일 '특위' 열어 … 선학원 부산서 대책회의

조계종 새 집행부가 재단법인 선학원 문제를 본격 공론화해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결말을 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른바 '조계종의 뜨거운 감자'로 불리우는 선학원 문제에 대해 조계종은 지난 85년 제84회 종회부터 종회가 열릴 때마다 잔상과약과 타개책 강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개혁회의 기간 선학원, 대각회 등 사설사암 및 타 단체등록 사암에 대해 엄격히 칼을 대기로 한 조계종은 지난 9월29일 공포된 개정 종헌에서 강력조치를 천명했다.

종헌 제 9조 3항에서 사설사암은 반드시 종단에 등록토록 하고 법인에 대하여는 정관에 조계종의 관장하 임을 명기토록 했다. 4항에서는 조계종에 등록치 않은 사설사암에 대해 일체의 종무지과 교육의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못박았다.

또한 선거법 제 10조 6, 7항을 통해 선거에 나올 수도 투표할 자격도 제한시켜, 지난 11월 선거직전 수십 사암이 조계종으로 명의 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고무된 조계종은 지난달 28일 제 114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선학원 대책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15인의 중진 의원으로 위원을 선임했다.

조계종은 지난 8일 선학원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선학원에 대해 선학원 정관 제3조에 '대한불교 조계종 종지를 봉대하고'를 삽입하고 제 6조에 '임원(이사)은 중앙종회에서 조계종 재적승려 가운데 후보로 선출해 추천한다'로 개정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또한 선학원을 조계종의 특별교구로 선정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한편 교구본사와 같은 지위를 주자는 의견도 대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선학원은 지난 6, 7일 양일간 부산 해운대 글로리콘도에서 「재단법인 설립인가 60주년 기념법회」를 겸한 전국 분원장 회의를 갖고 '선학원 · 조계종' 대책 회의를 가졌다.

1백70여명의 전국 분원장이 참가한 이날 회의에서 선학원 · 조계종 문제는 감정적이나 법적으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는데 일단 합의하고 상호 의견교환을 위한 공식 만남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아직까지 조계종 새 집행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으므로 조계종의 공식입장이 전달되면 12월중 재단이사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계종과 선학원 양측이 일단 충분한 접촉을 통해 상대방과 의견을 절충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이 북은 체증을 바라보는 종도들의 바람이다.

〈이경숙 기자〉

종토세 등 관계법 개정 촉구

조계종 대 정부건의 군승 · 복지시설 형평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달 30일 청와대로 김영삼 대통령을 방문한 자리에서 △종합토지세 및 토초세 면세 등 세제 개선 △대구 전주 대전 강원지역 불교방송 지방분국 확충 등 7개 항목의 대 정부 건의서를 전달하고 이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날 전달된 대 정부 건의서는 △문화재 관람료 제도 개선 및 공동에치금 사용료 확대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중 10~30% 사찰 배분 명문화 △군대내 종교신자 비율에 따른 군승 충원 및 불교시설의 증설 △사회복지 사업 참여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전통사찰보존법 등 불교관계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 '예불도' 장천1호분(압록강 대안소재)의 널길에서 앞방으로 들어서면서 머리를 들면 보이게 배치된 이 예불도는 고구려 고분벽화중 처음으로 발견된 불화로 당시의 대중화된 불교신앙을 입증하고 있다. 내년 3월 31일까지 경복궁 구 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고구려 고분벽화 특별대전에는 예불도 외에도 보살도, 연꽃 화생 등의 불화가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승풍진작에 최선 다할 터"

총무원장 월주스님 취임법회 성료

조계종 28대 총무원장 송월주스님 취임법회가 9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법등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취임법회는 원로회의 의장 혜암스님을 비롯 원로 대덕스님들과 이민섭 문체부장관 권익현 국회장각회장 민병천 등국대 총장 등 학계 정계 인사, 각 신행단체장, 신도 등 1천여명이 동참했다.

신임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계율호지와 승풍진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임사 요지 14면)

이에 앞서 월주스님은 전통의식으로 봉행된 육법공양에서 부처님전에 향 등 꽃 과일 차 쌀 등을 올렸다. 이어 총무원장에게 육환장이 봉정돼 임기 4년의 총무원장 업무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타워호텔 팔코비 홀에서 총무원장 취임축하 다과회를 개최했다.

목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난 5일 선원빈거사 유고집 〈솔바람 소리를 듣던 사람 선원빈〉 출판기념회장에서는 인간미 넘치는 정감어린 말들이 오고갔다.

〈솔바람 …〉은 고인을 추모하고 기리는 후배들이 생전에 못다한 정을 나누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엮은 책이다.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이시대의 동업중생이다. 특히 같은 길을 가거나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욱 가까운 동업중생이다. 이렇게 볼때 불교언론을 일구고 가꾸다 먼저 떠난 선원빈거사를 기리는 선후배들의 정(情)은 동반자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죽음이 그 인연을 단절 시킬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지난 6일 강원도의 군법당 도솔사에서 있었던 이동신법사 추모비 제막도 아름다운 이야기의 하나다. 10년전 입적한 고인의 전법정신을 기리면서 선후배 군법사와 스님들, 그리고 신도들까지 동참하여 추모비를 세운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능엄경에서 말씀하셨다.

'한 사람은 일념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면, 이 두 사람은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요 보아도 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 생각하여 생각하는 두 마음이 간절하면 이생에서 저생에 이르도록 등에 그림자 따르듯이 서로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행하고 전하는 우리 불자들은 서로 어떤 동반자의 자리에 있으며, 나는 과연 어떤 동반자인가 한번쯤 돌이보면 좋겠다.

81세에 컴퓨터 배운 조상원거사 5면

이웃에게 현대불교를 보냅시다

12월5일까지 1천2백여 구좌 접수 … 군법당등에 법공양

부처님의 법음과 오늘을 살아가는 불자들의 진솔한 이야기, 새로운 정보가 살아 숨쉬는 현대불교는 창간호부터 법공양 운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1천2백여 구좌의 법공양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법공양 하신 분으로는 이주현 · 오계민 부부 1000구좌, 설정수씨 48구좌, 윤여형씨 40구좌, 김준성, 김영옥씨 각각 4구좌, 이명의 독자가 100구좌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의 법공양으로 전국의 군법당 96개소, 교도소 38개소 등에 1년간 현대불교를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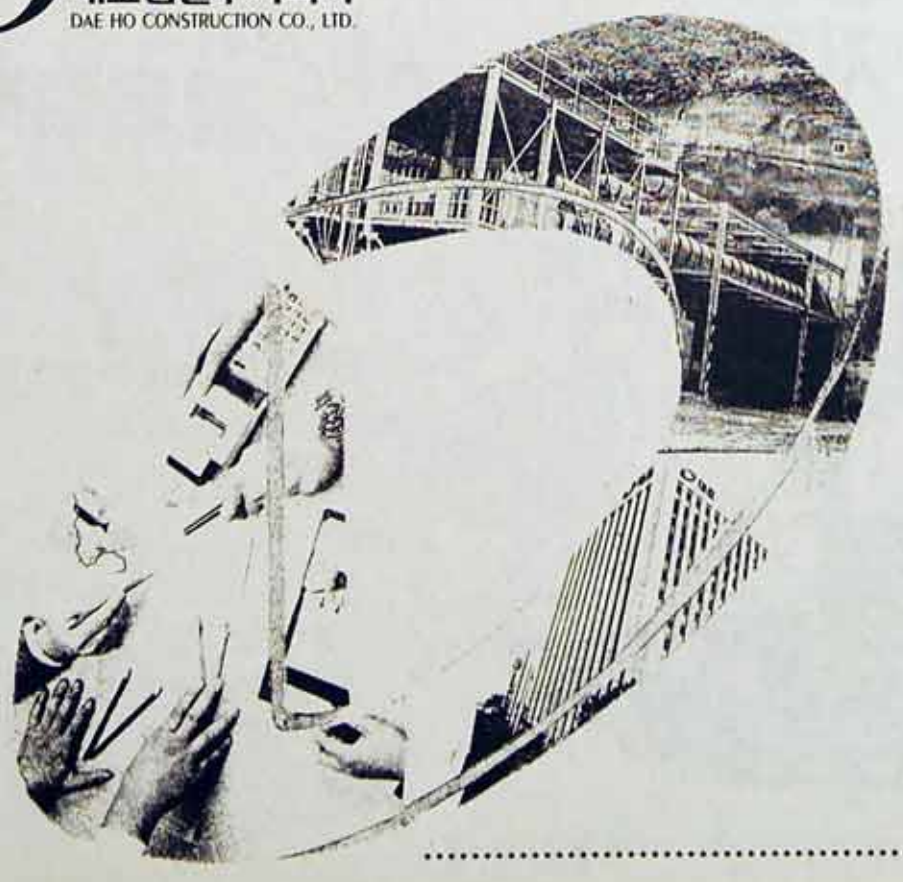
동참에 감사드리오며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법공양 안내〉

◇ 받아보실분 : 지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사가 선정 우송합니다.
◇ 주소 :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한마음 불교회관
◇ 1구좌 1만원 : 1구좌를 신청하면 3개월간 구독 가능하며 구좌 수는 제한 없습니다.
◇ 문의 : 본사 총무국 (02) 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대호건설주식회사
DAE HO CONSTRUCTION CO., LTD.



2000년을 향한
꿈의 실현,
대호건설의
의지입니다.

미래건설의 신창조를 이루는
대호건설은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풍요를 생각하며,
건설산업에서 첨단통신분야까지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주) 세미냉장


(주)서초케이블 TV


(주)대호헬스랜드

열린마당

음주문화

사 설

술 권하는 문화, 심각한 반성 절실

술을 마시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금지하는 중요한 계율 가운데 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육방예경(六方禮經)」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허물이 있다. 재산을 소비하게 되고, 병이 생기고, 잘 다투고, 나쁜 이름이 퍼지며, 분노가 폭발하고, 지혜가 날로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술을 마시고 취하여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 정신을 맑게 가지고 지혜롭게 살려는 삶을 망치는 것이 술의 마력이다. 불교 계율의 다섯번째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며, 보살의 몇 가지 중요한 계에는 "술을 팔지 말라"고 하였다. 술을 팔아서 남의 마음에 지혜의 종자를 어둡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범망경(梵網經)」의 보살들이 지켜야 할 48가지 가벼운 계(戒)에서 두번째의 술 마시지 말라. 술 때문에 생기는 과오가 헤아릴 수 없다. 술잔을 남에게 권하기만 하여도 오백생이나 자손이 없는 과보를 받았다는 데 어찌 봄소 마실 것인가. 보살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지 않도록 권유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거나 남에게 마시게 하면 죄가 된다"라고 한다.

요즈음 술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발길 닿는 곳마다 술 권하는 문화와 만나고 있다. 개인과 사회를 파괴하는 수준에 이른 우리의 술 문화를 이대로 방치해도 좋을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영웅은 술을 좋아한다는 옛말이 있다. 이 말을 술을 사랑하는 한국의 남성들이 술좌석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호기롭게 떠드는 말이다. 이러한 속언 말고도 술과 연관된 많은 이야기들이 애주가들의 좋은 안주가 되고 있다. 그러나 냉철하게 돌이켜 보면 남성들의 호기를 자극하는 술과 관련된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 사회가 알콜중독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우리사회는 술에 대한한 너무 관대하다.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술을 구할 수 있다. 곳곳에 술을 파는 상점이나 술집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음주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고령층 보다는 청소년층이나 여성층이 술 제조회사들의 광고 대상이다. 그들은 청소년들과 여성들의 센티멘탈리즘을 자극하여 술을 먹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알콜중독자는 2백만을 넘어섰다고 한다. 알콜중독자가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조사보고에 의하면 알콜에 중독된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교정되는 것은 20%가 안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음주문화가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장래에 적신호가 오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근래 음주운전이나 음주로 인한 폭행, 절도, 강간 등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점은 음주의 폐해가 사회적임을 증명한다. 청소년들의 27%가 음주를 경험했으며, 그들 중의 일부는 매일 술을 먹어야 한다는 보고는 충격적이라 할 것이다. 이제 음주는 남성들의 호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과 마찬가지로 사회를 파괴하는 약물중독으로 취급해야 마땅하리라 본다.

나는 이렇게 본다

중독자 2백만… 확산 막아야

◇ **이제열**(유마선원상임법사) = 요즈음 들어 부쩍 난무하는 술 광고와 함께 술 소비량도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고 한다. 맥주와 소주회사 들은 앞을 다투어 새로운 제품개발과 함께 각종 판촉 작전으로 음주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술 회사들의 노력은 절대적으로 성공을 거두어 우리 나라의 알코올 중독자 수는 이미 2백만을 넘어서고 있다. 과거의 흉타령이 깃든 노인들의 정취 어린 모습 대신에 밤거리에는 술에 만취되어 뒤엉켜 쓰러진 청소년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술은 독약이고 독수이며 독기이다. 모든 잘못의 시초이며 악의 근본이고 현명함을 쫓아내고 성스러움을 깨뜨리며 도덕을 흐트린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생의 온갖 병을 치료하는 것이 불법일진대 불자들만이라도 불음주를 실천하고 술의 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하겠다.

적당히 마시는 태도 절실

◇ **나현준**(방송위원회광고부) = 언제부터인가 연말이면 망년회가 떠오르고 망년회는 술로 이어지는 관계가 되었다. 전국이 술마시는 시즌에 접어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년은 유난히 술에 대한 광고도 활기를 띠었던 한해였다. 맥주 3사가 광고를 통해 전쟁을 하다시피 술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방송을 통한 광고가 음주를 조장하는 데 일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방송광고심의 규정에 따르면 알코올 함량이 15도 이상의 술은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광고 방영시간도 밤 10시 이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술을 외면하며 살아는 수는 없다. 술을 마시는 데 외부 요인에 원인을 주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겠다. 자신이 얼마나 절제하며 적당히 마시는 술 문화를 만들어가는 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제열법사



◇나현준씨

잠깨우는 아빠는 얄미워

◇ **조은화**(청신국교 6년) = 가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시는 날이면 저희도 짜증이 납니다. 술 냄새도 그렇거니와 늦은 밤에 잠자는 동생과 저를 깨워 이야기를 하는 등 귀찮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12월달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께서 술 마시고 들어오십니다. 아버지 말씀이 사업상 친구분들과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왜 사업을 하는 데 술을 마셔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해를 보내면서 1년에 한번 친구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아저씨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엄마나 동생 그리고 저도 아버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저희도 집에서 아버지가 참석한 가운데 연말을 맞고 싶거든요.

질병·사고의 큰 원인

◇ **김경빈**(신경정신과 의사) = 남자라면 무조건 술을 잘마셔야 된다는 민간속설은 우리나라의 지나친 음주문화를 일반화 시켰다.

우리나라는 심할 정도로 술을 권하고, 마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술의 문화 속에서 술을 기피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특히 연말에는 폭음으로 인한 위장출혈, 급성간염, 위염, 교통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올바른 음주문화의 계도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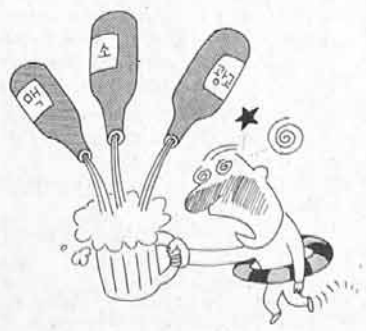
◇조은화양



◇김경빈씨

현대만평

박 구 원



정신없네

시 론

적당하면 藥 지나치면 毒



이 동 식
〈연세대 신경과 외래교수〉

나는 1942년부터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술의 폐단이 외국에 비하면 거의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1954년에 미국 뉴욕에 있는 유명한 벨뷰정신병원에 가서 놀란 것은 한국에서 정신과 의사 12년 동안 한번도 보지 못한 몸을 떨고 헛것을 보거나 듣거나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등 작은 동물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환각을 일으키는 진전선망(미국사람은 디(D) 티(T))라고 하는 알콜중독성 정신병을 포함한 알콜중독 환자가 저녁마다 80명이나 입원하는 것이다.

일제 때는 한국사람에게 다른 종류의 알콜성 만성환각증 한 사람을 봤을 뿐 "디티(D.T.)"는 미국에 가서 처음 보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국에 비하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병이라 일본의 정신병학 교과서에는 일본환자의 사진이 실리고 있었다.

4년반만에 돌아와서 고려의대 전신인 수도의대에 와서 근무해보니 한국에도 알콜중독 알콜정신병 "디티"가 불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금은 국립 서울정신병원에서도 알콜중독 환자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미국식 조사방법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콜중독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조선족이 한족보다 술을 많이 마시고 있다 한다. 이것은 사실과 부합되는 것 같으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주정 중독자가 많다는 조사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척도로 조사했기 때문이라 생각 된다. 러시아나 유럽 동유럽 미국의 경우는 우리의 마약중독환자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 질적이나 양적으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 알콜문제다.

음주문화의 서양화

우리나라도 이러한 심각한 환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문화일반과 음주문화의 서양화가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원래 약주나 막걸리를 마시며 술도 친구와 음식에 곁들여지는 경향이다. 친구나 음식없이 술만 마시는 사람은 드문 알콜중독자였다.

알콜중독은 술을 체질적으로 안받는 사람을 제외하면 의존심이 강한 사람이 술에 매달리기 때문에 생긴다. 술을 마셔도 안주를 잘 먹고 알콜을 몸 안에서 태우는 데 필요한 비타민 특히 치아민을 충분히 공급하면 뇌손상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정신장애는 잘 오지 않는다. 물론 간이나 위장에도 해독을 끼치나 그것은 이차적이다.

우리는 이태백같은 사람을 주선(酒仙)이라 하는 데 그는 아마도 요새같은 알콜중독자라고 할 지 모르겠다. 주도(酒道)라는 말도 있다. 우리의 술은 약주(藥酒)라고 해서 본래 약이다. 법주라는 것도 있다. 지금 시판되는 법주는 경주 최씨집안의 법주가 아니다. 진짜 법주는 심하게 취하지 않는다. 특히 좋은 막걸리는 여러가지 영양소가 있어 약이다.

망년회는 일제 잔재

내 자신 어릴 때 차례를 지내면 음복하라고 삼촌이 주는 약주가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지금도 그런 약주는 왜 만들지 못하나 늘 의문이다. 스무살 전후에는 술을 많이 마셨으나 30대에 미국에 가서는 술 담배를 끊었다. 술은 어쩌다가 맥주를 한두잔 마실 정도였는 데 한국에 돌아와서 회의를 끝마치고 술 마시러 가자고 해도 같이 가지않으니까 내게 적대감을 가지는 것같아서 조금씩 마시게 되었다. 잘 마시던 사람이 마시지 않으니까 사람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술을 안 먹고 손님을 집에 초대하며 술을 대접하며 옆에서 보니 쓸데 없는 소리만 지껄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술을 먹지 않으면 자기 속 얘기를 하지 않거나 못하기 때문에 대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음주는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보겠다. 물론 체질적으로나 건강상 마시면 몸에 해로운 사람은 마시지 말아야 한다.

술을 마셔도 긴장이 심한 사람은 술에 잘 취하지 않고 마음이 편한 사람은 술이 저절로 조절이 된다.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문제가 노출된다.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압된 적개심이 풀려나서 흥분하고 남을 공격하는 사람도 많다.

때로는 폭행으로까지 가게 된다. 유쾌해지는 사람이나 잠이 드는 사람은 무난하겠으나 집으로 들어가다가 도적을 맞을 위험도 많다.

술은 1950년대에 인도의 민간요법에서 사용하던 식물에서 빼내서 합성한 안정제가 나오기 이전의 시대까지 정신안정제 구실을 해왔다. 그러나 적당하게 사용하면 마음의 시름을 달래주지만 지나치면 몸과 마음에 병을 일으킨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저절로 술이 조절되나 함 말이 많고 해결이 잘 안되는 사람은 조절이 안된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잠이 더 많이 오는 경향이 있지만 문제가 있으면 주기가 가시면서 도리어 잠이 일찌기 깬다. 문제가 없으면 술이 덜 깨도 일을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술이 깨어도 술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이제 세모가 가까와지면 일제시대 잔재의 하나인 "망년회"가 많아지는 계절이라 술마시는 기회가 많아지겠지만 술을 적당히 마시고 대화와 노래로 건강을 도모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건강에 나쁜 독한 술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직 고교 선생님의 명강의와 최고의 교재
대학으로 가는 지름길!!
시사 고교 영어-수학 비디오 학습강좌

부족했던 학습보충과
다음 학기 예습을
일류강사 열 분의 명강의에
맡기십시오.
댁의 귀한 자녀를
우등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시사 고교 영어·수학 VIDEO 종합
강좌는 전국고교에서 채택중인 8종
교과서를 종합한 최신 학습 교재입
니다.

내신성적, 수학능력 평가시험, 대학 본고사의 확실한 개념 설명과 정확한 논리, 다양한 문제풀이로 모든 학생들의 어려움을 시사영어사 VIDEO 강좌가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영어 조기교육의 필수교재
ENGLISH300
국민학교 비디오영어
■ "English 900"의 저자 Edwin T. Cornelius, Jr. 박사 저
즐겁게 보고 들으며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미국 어린이들처럼 영어로 말하게 됩니다.

시사 중학영어·수학 VIDEO 종합강좌
5종 교과서 총망라
기존 중학교재의 문제점과 취약부분을 철저히 보강하여 완벽하게 마무리한 「시사중학영어/수학VIDEO 종합강좌」
-우등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 영어강사 박서환 · 현 서울 양재고 교사 / 김충길 · 현 오금고 교사 / 서승진 · 현 한림대교수 · 언어학 박사
■ 수학강사 전도선 · 현 서울 양재고 교사 / 조성환 · 현 서울 양재고 교사 / 장 훈 · 현 한성과학고 교사

YBM 시사영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642-19(역삼하이츠 1빌딩 17F 765호) TEL: (02)558-5167~9, 565-5244 / FAX: (02)566-1246
교육부 본부장 이 용 갑

신행수첩

건강한 청소년 건강한 사회
청교연 윤리회복대회

올바른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밝고, 건강한 청소년문화를 세우자는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박현성)는 오는 18일, 29일 각각 대전 보현문화회관과 온양교육회관에서 「청소년 윤리회복 실천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 초·중·고생들은 건전한 생활을 통해 자질을 함양하고 윤리관을 재정립,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자는 '우리의 다짐' 시간을 갖는다.

이어 열리는 중창, 현대무용과 사물놀이, 가야금병창, 고전무용등의 장기자랑은 행사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것이다. 이번 실천대회는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진취적 내일을 마련한다는 송년잔치의 의미도 담고 있어 꿈과 웃음을 마음껏 펼치고 싶은 청소년의 많은 참여를 권해본다. (02) 735-8165

양심수에 따뜻한 겨울을
인권위, 성금·성품모금

맑고 깨끗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진보의 그날을 위해 고군분투하다 여름이면 화탕지옥, 겨울이면 팔한지옥 같은 감옥에서 수행생활을 하는 양심수들.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불교인권위원회가 발벗고 나섰다.

인권위는 양심수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후원금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따뜻한 털양말 한 켤레라도 좋고, 속내의 한벌도 좋다. 천원도 좋고 만원도 좋다.

양심수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불자들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02)745-1852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제18차 어린이지도자 연수

초롱초롱한 어린이의 눈망울과 꾸밈없는 마음은 언제나 늘 부처님의 모습이다. 이런 어린이들의 모습을 만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수행이 아니고 무엇이랴

94년의 끝에서 만나 95년 새해의 문을 활짝 열 어린이지도자들이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 모인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 연합회(총재 조정관)가 주최하는 제18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가 94년 12월 31일 오후4시부터 95년 1월 2일까지 2박3일 동안 경주월드에서 개최된다.

'희망찬 미래불교, 어린이 가슴에'를 주제로 한 이번 연수회는 어린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임을 볼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의 자리다.

서로 어울려 배우는 민요와 단가, 전래동요, 전래놀이등 기타 프로그램은 흥미로운 교사가 된다는 자부심을 한껏 드높여 줄 것이다.(051)808-4569, 4570

외국인 근로자에 용기를
18일 자비의 집 송년법회

우리들의 가슴에는 항상 불성이 살아 숨쉬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고 산다.

불성은 우리 생명같고 생명은 자비의 씨앗이다. 부처님은 자비의 손으로 조건없이 온 세상을 어루만져 주시며 중생들의 고통을 헤아려 준다.

이와같은 부처님의 따뜻한 법연이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 불자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고 외국인 불자와 국내 불자들의 돈독한 형제애를 맺게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불련 자비의 집(회장 동광)은 오는 18일 정토포교원에서 한해를 보내기에 앞서 '외국근로자들과 함께하는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그동안 생활습관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각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근로자들을 초청, 전통음식 만들기·장기자랑 및 각나라의 전통음악이 한데 어우러지게 된다.

자비의 집은 외국근로자들을 위해 직장알선과 생활개선, 우리말을 가르치고 있다.



◇ 청소년 포교 요람지 화성 신흥사는 수련회, 강의등이 끊이지 않는다.

부처님 품에서 해방감 만끽
우리는 선우, 화성 신흥사서 고교생 수련회

늘상 대입시험이라는 부담을 안고 생활하는 고교생들에게 찾아온 겨울방학, 그나마 이 신나는 방학마저도 며칠은 보충수업으로 메워진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 또래와 단 하룻밤만이라도 같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바로 이런 꿈많은 고교생들에게 잊지못할 추억을 만들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박광서·남지심)는 95년 1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동안 화성 신흥사에서 고등학생 동계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회는 다양한 일정으로 꾸며져 있다. 이중 3일간의 새벽과 저녁예불, 둘째날 밤의 1080배는 부처님 앞에서 새해의 계획과 신심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강의와 심성훈련등 교양·사회활동 프로그램은 올바른 민족관과 불교적인 바른 삶의 가치관을 찾으려는 참가 고교생들의 진지함으로 채워진다.

밤새 쌓인 눈위를 뒹굴며 서로의 우정을 나누는 '만남의 시간'과 '공동체 놀이'는 공동생활을 통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설익은 만남, 그러나 돌아오는 길은 낯익은 얼굴들에 낯익은 대화들로 가득할 만남.

이 미지의 세계에 많은 고교생들의 힘찬 도전을 기대해본다. (0339)57-3916

불자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02) 945-4200

'예쁜 어린이집' 찾아
여불련, 불교만화 기증

'만화속에서 부처님과 친구가 된다'

만화속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부처님은 쉽게 어린이들의 다정한 친구로 다가설 것이다.

불교만화를 통해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불교를 접할 수 있게 하자는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오는 21일 경기도 부천 '예쁜 어린이집'을 찾아 〈부처님이 좋아요〉 〈부처님의 십대제자〉 〈만화 백유경〉 등의 어린이 불교만화 1백권을 기증하게 된다.

이와함께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송년회 시간을 어린이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02)738-5586

핏줄보다 더 진한 정
24일, 후원자와 만남의 날

세상 부모들은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더욱 진실한 사람으로 자라나, 지금보다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부처님의 자비와 자혜의 가르침은 순수한 동심을 광명으로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방편임에 분명하다.

강릉자비원(원장 부동)은 오는 24일 자비원 원생과 그간 도와준 후원회원과의 '만남의 광장'을 마련한다.

자비원 소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살부터 18살까지 58명의 원생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후원회원과의 핏줄보다 진한 정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0391)42-3555

자비의 쌀을 이웃에게
마하선원 재활원위문

선인들은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진실로 보살피는 일이다"고 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가 없는지 돌아볼 때가 되었다.

서울 상계동 미하선원(주지 종월)도 25일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천애재활원을 찾아 지체장애인들을 위문 할 예정이다. 이날 재활원 방문은 일요법회 후 신도들이 모두 동참하기로 했다. 마하선원의 이웃돕기행사는 백미 1말이면 누구나 동참 할 수 있다. 작은 정성일지라도 천애재활원의 장애인들에게는 따뜻한 겨울나기가 될 것이다. (02)952-0666

어린이 연극·시낭송
25일,이리 관음사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합장하는 어린이의 마음은 그대로가 부처님의 마음일 것이다. 그 마음으로 한마당 잔치를 펼친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리 관음사(주지 월우) 어린이회가 학부모를 초청하여 '어린이 자비의 밭'을 마련한다. 25일 오후 7시 법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연극(황금빛 사슴)을 비롯 찬불가 합창, 에어로빅,시낭송등이 선보인다.

50여명의 어린이회원 모두가 두달간 하루에 두시간씩 연습에 몰두했다. 처음으로 치루는 행사여서 어색함도 예상되지만 부처님같은 고사리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0653)54-1578

나의 수행일기



리 제 재

<동수원 중학교장>

나의 수행생활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 학생 불자와 더불어 이루어졌으니, 수원불교 학생회, 수원불교 청년회, 수원시 신도회의 창립이 그것이다.

수원지역에 최초로 창립된 수원불교학생회(용주사 수원포교당내)가 올해 25회 수료생 46명을 배출함으로써 총 777명이 수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퍼져 상구보리 하화중생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흘러가는 세월따라 초창기 학생회 출신 불자가 주축이 되어 창립한 수원불교청년회도 20돌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 그들도 40 불혹의 나이가 되어 가장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로서 불법을 널리 펴고자 활약하고 있음을 볼 때 마음 든든하다.

이와같이 청소년·학생 불자가 장년이 된 1992년 2월 24일, 다른 종교단체와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수원시 신도회의 창립을 보게되어, 오랜 신행생활을 한 이들과 함께 현대불교의 생활화를 위해 미력하나마 진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매월 둘째 일요일은 가족과 같이 효심(孝心)의 본찰 용주사를 참배하고 법회를 보면서 신심을 굳히고 있으며, 그밖에도 학술발표회, 전시회, 놀이마당등도 열어 생동감 넘치는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편, 인연있는 도량을 찾아 옛스님을 찾아뵙고 등산도 하면서 마음을 닦고 있다.

필자는 공립학교에 봉직하고 있으므로 특별활동에 불교반을 두어, 먼저 지도교사를 양성하고, 학생들에게는 종립학교 교재를 나누어줘 지도하고 있다. 이에 다른 교사나 학생들의 관심이 커지고 불교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에 보람을 느끼게 된다.

가정에서는 가족과 함께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서재에는 〈고려 대장경〉 영인본 48권, 〈한글 대장경〉 100권과 함께 제일 좋은 자리에 불상(佛像)을 모시어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올리며 출·입시에는 꼭 합장 예배하고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대문을 열고 정리한 다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앞서 고요한 마음으로 향(香)을 사르고 청수(淸水)를 붓고 필자의 묵락과 중치기 북치기로 집전하는 아침예불을 가족과 같이 드림으로써 하루가 밝기 시작한다. 하루의 과업을 마친 저녁에는 때에 따라서는 늦고 피로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불을 올리고 나서야 쉰다.

아침에는 석가모니불, 저녁에는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정근을 큰 소리로 올리며, 효원의 도시 수원이라 〈불설대보부모은중경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을 읽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참선 공부를 하고 있다.

신행생활은 머리나 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행위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신행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믿음은 생활화 되어야 한다.

불교방송에서는 아침 5시부터 45분동안 아침예불로 방송이 시작되며, 저녁은 6시부터 15분간 예불이 올려지고 있으니 가능하면 이 시간에 맞추어 염불·간경·참선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제자들의 포교활동 볼때 마음 든든

필자는 자운 성우 대율사(慈雲聖右大律師) 스님으로부터 70년 4월 10일 5계와 무염(無染)이라는 새이름(법명)을 지어 받았다. 호계첩이 들어있는 호계함 표지에는 '세상에 살되 허공과 같이 하며, 연꽃과 같이 물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깨끗이 해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라'고 이르셨다.

세상이란 번뇌망상에 꼭 차있게 마련이며 혼탁한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으니 그 속에서 살아가되 저 허공과 같이 살라는 말이다.

허공은 한 물건도 '소유하지 않음'을 말하니 탐의나 비리에 타협하지 말라는 뜻이며, 동시에 티끌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니 '일체를 다 포용'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되, 진흙이 묻지도 않고, 물방울도 묻지 않음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살되 현실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생활을 해야한다. 더럽다고 현실을 도피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현실속에서 연꽃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

이와같이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써 현상의 이 언덕(此岸)에서 이상적인 저 언덕(彼岸)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필자의 좌우명으로 이와같이 살려고 수행에 힘쓰고 있다.

생활속의 불교 ⑨

"노비문서를 애지중지하는 사람들"



업이라는 것은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어긋남도 없다. 수억 겁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지은 대로, 선하게 지었으면 선업으로, 악하게 지었으면 악업으로 그 과보를 받는다.

거기엔 예외가 없다. 선·악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돌고 도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선업과 악업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한 경우는 나쁜 주인을 만나 갖은 고생을 다 하게 되는 노예인 반면 다른 경우는 좋은 주인을 만나 편하게 살아가는 노예인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둘 다 노예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과거로부터 지고 나온 업을 채곡채곡 쟁여 놓는다면 비유컨대 달까지 갈 만큼 그렇게 많고 무거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려 놓으려 하지 않고 짊어진 채로 살고 있으니 수억 겁 두고두고 쌓인 노비문서에 짓눌려 사는 꼴이나 같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제 노비문서를 애지중지하고 있다.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도 내려 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감옥에 갇힌 꼴이요, 벼랑 끝에 매달린 꼴이나 다름 없다.

이제 노비문서를 불에 태우고 자유를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방법이 불법 속에 있다.

불법의 ·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한건의 누수 사고도 없었습니다

■ 86년 3월 설립
■ 대형 건설업체의 취약부분인 고질적인 방수 하자 보수공사 성공리 완료
■ 설립 7년 만인 93년 연간 약 46억의 공사 수주
■ 신방수공법, 특수도장 부문 등 각 건설업체로부터 각광
■ 100% 직영 처리
■ 기술 및 안전에 관한 철저한 교육 실시
■ 회사 설립 이후 철저한 무사고 시공!

목표는 국내 최고!!

성풍산업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번지의 29
전화 553-2441~3, 553-7768~9
팩스 553-2449

교 차 로

'나눔의 기쁨' 서울 설법



법정스님(맑고 향기롭게 회주)은 오늘 26일 월요일 오후 7시 효암아트홀에서 열리는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기쁨을' 행사에서 '나눔의 기쁨'을 주제로 설법한다.

이날 행사에는 노영심 김광석 김영동씨 등이 동참한다.

광주사암연 회장에 추대



영조스님(증심사 주지)이 제 9대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영조스님은 '맑고 향기롭게' 운동본부와 연계 광주지역에서도 인륜이 중시되는 사회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주사 주지에 임명

월성(月性)스님이 지난 2일자로 조계종 제 5교구 법주사 주지로 임명받았다. 스님은 1934년 남원출생으로 54년 금오스님을 은사로 실상사에서 출가 38하안거를 성만했다. 동화사 재무, 청계사 주지, 불국사 재무, 북천선원장 등을 역임했다.

판문점 땅굴 시찰



원행스님(평화통일추진불교인협의회 전북본부 본부장)은 10일 판문점, 제 3땅굴을 시찰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했다. 이번 시찰에는 평불협회원 40명이 동참했다.

일본 복지단체 탐방



리선행법사(주수미산 여행사 회장)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생 40여명을 인솔하고 일본 오사카 나라 교오또 일원의 복지단체를 방문한다.

방송칼럼집 출판기념회



주양자의원(민자)은 지난 2일 오후 6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불교방송 아침칼럼 「작은 목소리가 통하는 세상」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연말 송년법회 개최

구자순씨(대한불교부인회 회장)는 오는 15일 오후 1시 명동유네스코회관 11층에서 회원들과 함께 연말 송년법회겸 이사회를 가질 예정이다.

1급 청소년지도사 회장에



선진규법사(봉화산 청소년수련원장)가 지난 5일 창립된 한국1급청소년지도사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방동 보리매공원내 청소년연맹 강당에서 96명의 1급지도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된 청소년지도사회는 역사의 계승자며 미래 민족문화창달자인 청소년들을 효율적 지도할 것을 결의했다.

대한민국문학상 희곡부문 수상



하유상씨(한국불교문인협회 회장)가 한국 문인협회가 제정한 제 31회 대한민국문학상 희곡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희곡(감투바람)이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거행된다.

송년법회 봉행



권오성법사(예비역 군법사회장)는 14일 오후 6시 앰버서더호텔 지하 1층 금수장에서 송년법회를 봉행, 새해의 왕성한 활동을 다짐한다.

게시판

▲겨울방학 특강=서울 노원구 마하선원(주지 종월)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한문교실을 개설한다. 26일 개강하는 한문교실은 국민학생 대상으로 매일 오후 4시 주지스님의 강의로 진행된다. (02)952-0666

▲경복궁·창경궁답사=우리문화연구원(원장 허균)은 18일 제 74회 문화유적답사를 경복궁과 창경궁에서 실시한다. 답사비 5천원, 당일 오전 10시 국립중앙박물관앞에서 출발. (02)278-0963

▲토종을 찾아서=두레생태기행(회장 김재일)은 18일 오전 8시 제 3차 생태기행을 갖는다. '우리의 토종'이란 주제로 실시되는 이번 기행의 장소는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토종마을과 둔내면 한우방목장이다. (02)712-5812

▲기초교리강좌 개설=반야정사 불교대학(학장 석우스님)이 지난 7일부터 3개월코스의 기초교리강좌를 마련했다.

이번 강좌는 주간반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야간반이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열리며 교재는 천수경이다. (02)3491-8833

▲'제 23회 동국인의 밤' 개최=동국대 총동문회는 오는 20일 오후 6시 30분 장충동 쏘피텔 앰버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 23회 동국인의 밤'을 개최한다.

▲대불련 총동문회 송년법회=대불련 총동문회는 오는 26일 오후 7시 삼일선원법당에서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동문회 사업전반과 위상정립에 관해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송년철야정진 기도법회=한국불교연구원 부산 구도회(회장 김인경)는 오는 31일 부산 동구 수정동 소재 구도회 법당에서 송년철야정진 기도법회를 봉행한다.

부음 ▲김종기씨(불교방송 기술국장)부친이 지난 7일 별세, 9일 발인 (02)705-5311

고침 본지 8호 4면 광고 "제 28대 총무원장 송월주스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중 제 2교구본사 용주사 재무 정종을 '성종'으로, 기획 세영을 '세영'으로 바로잡습니다.



◇ 왼쪽부터 김성수 성공회 관구장, 최근덕 성균관 관장, 월주스님, 강원룡 목사, 김재중 천도교 교령

「종교인 평화의 밤」 열려 … 협력다짐

한국종교인 평화회의(회장 김동은신부)는 지난 2일 오후 5시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종교인 평화의 밤」을 개최했다. 종교계의 한해를 결산하고 종교간의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는 올들어 새로 선출된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조근덕 원불교 교정원장 등 각 종단 지도자의 취임 합동 축하연도 열렸다.



◇ 탄성스님은 지난 6일 개혁회의 스님들을 공림사로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했다.

개혁회의 스님들 공림사서 오찬

조계종 개혁회의 스님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였다.

개혁회의 총무원장이었던 탄성스님은 지난 6일 충북 공림사에서 개혁회의 소임을 맡았던 스님들에게 오찬 공양을 베풀었다.

이날 동참한 스님은 지선 지하 도법 법등 정우 일면 법성 여연 효림 진관 혜창 광상 시현 장적 현응 지홍 법안 자성 동출 스님 등 40여명.



◇ 왼쪽부터 홍기삼교수, 민병철 동대총장, 서정주·방옥숙 부부, 동대 이사장 녹원스님

미당 서정주 시인 팔순 축하연

미당 서정주 선생의 팔순축하연이 지난 2일 오후 6시30분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 대연회장에서 문인과 후학등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축하연에는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 동국대 민병천총장, 최재구 전국회의원, 원로시인 이원섭씨, 한학자 이병주씨 등 문화예술계 학계 경계 인사가 대거 동참, 미당선생의 팔순을 축하했다.



◇ 왼쪽부터 최정희 본지 편집국장, 중광스님, 정휴스님, 녹원스님, 공중원씨, 송석구 동국대 부총장, 장윤스님, 김형균 불지사 실장.

선원빈 유고집 「솔바람 … 」 출판기념회

전 법보신문 편집국장 故선원빈 거사의 유고집 〈솔바람 소리를 듣던 사람 선원빈〉 출판기념회가 지난 5일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과 부총장 송석구교수 ,박완일씨, 천태종 총무부장 도원스님을 비롯 고인과 생전에 가까이 지내던 교계인사와 후배 기자 3백여명이 참석 고인의 유고집 출간을 기념했다.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불교간병인협회

"환자의 고통은 곧 나의 아픔이죠"

매주 병실찾아 수발들며 쾌유 기원



▶ 불교간병인협회 자원봉사자 한청련보살과 김명옥보살이 보훈병원에서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모든 생명의 스승이신 부처님. 지금 여기 아파하는 중생이 있으니 고통에서 구하시고 좋은 약과 훌륭한 의사를 만나게 하시며, 본래의 건강을 되찾아 보람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불교간병인협회(대표 진오) 자원봉사자 한청련보살의 기도다.

매주 금요일이면 강남구 둔촌동에 위치한 한국보훈병원에 들러 13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한다.

오전 12시전에 병원에 도착, 법당에 참배하고 점심공양을 한후 간병활동을 시작한다.

보호자가 없는 환자에겐 머리를 감겨주고 세수·목욕도 시켜주는 등 궂은 일을 마다 않고, 심심해하는 환자들과는 대화도 나누고 책도 읽어 준다.

한청련보살은 92년 10월9일 협회 창립일부터 보살행을 시작, 그간 국군수도통합병원과 보훈병원에서 간병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자원봉사활동자 30여명과 번갈아 가며 헌신적인 간병공덕을 쌓은 결과 올해 7월에는 병원측으로부터 법당 개원을 허락받아 낙성식도 갖게 됐다.

매주 목요일 보훈법당(주지 지문)에서 법회를 보게 된 것도 간병인협회 회원들의 끊임없는 정성과 희생의 공과(功果)임이 틀림없다.

지난해부터 한청련보살과 함께 봉사활동을 해 온 김명옥보살은 자신들의 숨은 노고를 애써 감추면서, "봉사자라는 의식을 버리고, 남을 위한 봉사가 완성을 향한 공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는 마음이 항상 즐겁고 어려울 게 없다"고 말한다.

불교를 신행하는 환자의 경우 이질적인 종교문화를 가진 간병인에 의해 정신적 갈등을 겪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마땅히 부처님 제자로서 불자를 보호하고 환자에게 정신적 안정과 쾌유를 위한 종교적 기도를 발원하는 불자 간병인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협회 회원들의 이러한 신실하고 부지런한 봉사활동은 더욱 원력을 발해 지난 10월부터 매주 화요일 성남 부처님마을 자광원(원장 김정자)을 찾게끔 하기도 했다.

간병인협회장 진오스님은 "기존 간병인이 유료봉사만을 해온 현실에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따뜻한 불심으로 "간호하는 불자 간병인을 배출하고 간병분야에 불자의 참여를 높이고자 협회를 창립했다"고 회상하고, "간병해 준 환자들이 쾌차해 찾아오거나 고맙다고 후원금을 보내올 때는 잔잔한 감동을 받는다"고 말했다.

진오스님은 또 "보살님들이 가정과 사찰 신행에 머물지 말고 실제 봉사 현장에 뛰어들어 전문성을 겸들인 사회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이 사회에 현장불교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간병인협회는 무료봉사활동자 40여명 외에 유료봉사활동자 30여명을 보유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일일찻집을 운영하거나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협회 회원들은 "자식이 병들면 부모가 병이 없어도 아픈 것처럼, 보살은 병이 없지만 중생이 앓기 때문에 보살도 앓는다"는 유마거사의 서원처럼 날마다 환자들과 함께 아파한다.

불교간병인협회=(02) 725-4490

〈김재경 기자〉

불 교 성 지 순 례

인도에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 관광국 후원

인도 · 네팔 순례 14日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룸비니)에서 성불(브다가야), 그리고 설법(사르나트)과 열반(쿠시나가르)까지 모든 수행과 성도의 현장을 직접 순례하시고 성불하십시오. 오랫 동안 부처님의 큰 뜻을 연구해 오신 오국근 교수님(인도 네루대학 교환교수, 한국·인도협회 부회장, 한국 불교 청년회장 역임, 현 동국대 교수)께서 전 일정을 동행하시면서 부처님의 큰 뜻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卍 순례일정: 서울—방콕경유—네팔(카트만두, 히말라야산, 룸비니)—인도(브다가야, 사르나트, 쿠시나가르, 아그라, 아잔타, 발람푸르 기원정사, 라자기르 죽림정사 등 순례) 13박 14일

卍 출발안내: —제1차 순례: 12월 4일~12월 17일(신청마감일: 11월 19일) · · · 마감
—제2차 순례: 1월 1일~1월 14일(신청마감일: 12월 17일)
—제3차 순례: 2월 5일~2월 18일(신청마감일: 1월 21일)

卍 동 참 금: ₩ 2,190,000(신청금 포함, 여권인지대 별도)

卍 신 청 금: ₩ 200,000

미소의 나라, 불교의 나라로……
태 국 5日 — 동참금: 655,000 / 출발일: 12/7,14,21,28 1/4,11,18,25
· 일정: 서울—방콕—파타야—아유타야—방콕—서울

중국 불교의 또다른 발자취
대 만 5日 — 동참금: 645,000 / 출발일: 12/8,15,22,29 1/5,12,19,26
· 일정: 서울—타이페이—고웅(불광사)—화련—타이페이—서울

겨 울 여 행 특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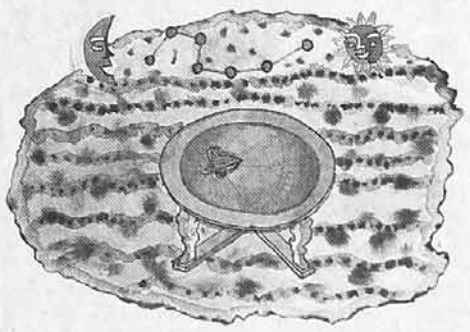
— 최고의 여정, 최상의 서비스, 최대의 기쁨 —

태국(파타야) 5日 ₩ 685,000	12月 17,18,24,25,28,29,30,31日 1月 7,8,14,15,21,22,28,29日	미국 서부 버스 7日 ₩ 799,000	12月 19,16,23,30日 1月 6,13,20,27日
대만(화련) 4日 ₩ 535,000	12月 14,18,21,25,30日 1月 1,4,8,11,15,18,22,25,29日	중남미 역사탐방 15日 ₩ 3,990,000	12月 22日 1月 5,19日
마 닐 라 4日 ₩ 625,000	12月 17,24,31日 1月 7,14,21,28日	중남미 일주 20日 ₩ 4,980,000	12月 25日 1月 8,29日
홍콩·마카오 4日 ₩ 545,000	12月 16,23,30日 1月 6,13,20,27日	유럽 5개국 10日 ₩ 1,940,000	12月 15,22,29日 1月 5,12,19,26日
동남아 3국 5日 ₩ 699,000	12月 14,17,21,24,28,31日 1月 4,7,11,14,18,21,25,28日	유럽 6개국 11日 ₩ 2,140,000	12月 18,25日 1月 1,8,15,22,29日
홍콩(마카오) · 방콕 · 싱가폴 8日 ₩ 995,000	12月 18,25日 1月 1,8,15,22,29日	유럽 8개국 버스 13日 ₩ 2,140,000	12月 17,24,31日 1月 7,14,21,28日
방콕 · 싱가폴 6日 ₩ 795,000	12月 13,15,20,22,27,29日 1月 3,5,10,12,17,19,24,28,31日	모로코,스페인,포루투칼 10日 ₩ 2,290,000	12月 15,22,29日 1月 5,12,19,26日
동경 · 하꼬네 4日 ₩ 945,000	12月 15,22,29日 1月 5,12,19,26日	사 이 판 4日 ₩ 645,000	12月 15,18,22,25,29日 1月 1,5,8,12,15,19,22,26,29日
일 본 일 주 5日 ₩ 1,235,000	12月 13,20,27日 1月 3,10,17,24日	괌 4日 ₩ 645,000	12月 15,18,22,25,29日 1月 1,5,8,12,15,19,22,26,29日
일본(혼슈 및 큐우슈우) 6日 ₩ 1,345,000	12月 13,20,27日 1月 3,10,17,24,31日	시드니 · 골드코스트 5日 ₩ 985,000	12月 18,25日 1月 1,8,15,22,29日
하 와 이 5日 ₩ 749,000	12月 14,17,21,22,24,28,29,31日 1月 4,5,7,11,12,14,18,19,21,25日	호주 · 뉴질랜드 8日 ₩ 1,545,000	12月 13,15,17,18,20,22,24,25,27,29,31日 1月 1,3,5,7,8,10,12,14,15,17,19日

※ 성수기 요금 변동있습니다.

여행조건 특급 및 일급 호텔 사용, 10人이상 출발, 전일정 식사 제공(기내식 포함) 해외 여행 보험 가입

불교 성지순례 전문 (주) 아 태 관 광 — 국외 여행업 제817호 — 저희는 이익금의 일부를 불우 이웃돕기성금에 사용합니다. — ☎ 732-3200 (代)



삽화 · 이기선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❼

윤회하는 삶 <三世輪回>

우리는 영겁의 수레 돌리는 주인

생각과 행동이 곧 업보 … 삼세를 지금처럼 보아야

은하계 우주는 무한한 것이다. 이 우주세계가 언제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궁금한 일이다. 과학자라 하더라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답하지 못한다. 빅뱅이론이 도입되기도 하지만 추론에 해당할 뿐이다. 불교에서는 무시무종(無始無終)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처음과 끝이 있을 수 없다. 우주건립의 시간과 우주상극은 불가사의한 것이다.

또한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도 무한량이다. 한 생명이 무량겁으로 살아가고 죽어가고 있다. 이 무량겁에 살고 있는 중생은 무한이다.

우리의 생명은 일회용이라고 생각하면 삭막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생각이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살고 있고 또 내일 살아갈 것이다. 이 어제를 긴 긴 어제로 보면 이것이 과거가 되고 또한 이 과거를 더 연장해 보면 대과거(大過去)가 되고 대과거를 무한히 증장해 보면 무량 과거가 될 것이다. 과거가 무량하면 현재도무량하고, 미래도 무량하게 될것이다. 세계의 시간은 무량겁이다.

수억 겁 살아온 생명

사람들이 역사라고 하는 시간도 겨우 몇 만년이나 몇 천년을 두고 계산한다. 구석기, 신석기, 철기시대로 분류하지만 인간의 역사가 정말 몇 천년 밖에 되지 않는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사람도 무수겁의 역사 속에서 살아온 생명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일회용 생명체라고 확정하면 잘못이다.

역사는 되풀이 한다. 역사는 반복성으로 회전하고 있다. 역사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전승되어진다. 왜 반복할까. 이것은 의식의 반복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되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아가게 된다. 이 생각과 행동은 업보가 된다.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이 업보의 작용이 있다. 이 업보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며 반복성이 있고 연속성으로 현현한다. 어제의 업이 인(因)이 되면 오늘의 과(果)가 되고, 오늘의 과(果)가 다시 인(因)이 되어 내일의 과(果)가 된다. 삼세는 두 가지 인과를 갖고 있다. 이처럼 행위가 무수히 연속되고 발전하게 된 그 사실이 현상적으로 표현하여 역사라고 한다. 그러므로 역사현상은 엄연히 반복하고 있다. 반복과 재현은 일회성이 아니고 윤회성이다. 역사가 윤회한다는 것이 이해되면 역사의 주역도 윤회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역사는 인간이 창조하는 피조적(被造的) 현상이다. 역사도 피조되는 것이고 역사창조의 제일의적 주체인 인간이 윤회하지 않는다면 모순이 된다. 간혹 우리들은 어디서 만난 사람이라고 하지만 언제 어디서 만난 것인지 확실하게 가늠하지 못한다. 어쩌면 환시 · 환각이 아닌가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언젠가 만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입장이 일회성으로 보니까 처음이지 지금이전의 처음을 연장해 보면 과거의 어느 시점이 될것이다. 그러므로 그 처음 속에 과거의 원인이 있었기에 지금의 결과속에 되살아남의 잔영이 생긴 것이다. 사람(思量)하기 어려운 먼 과거부터 살아온 것이다. 그 과거에서 눈여겨 사귀어왔던 사람이었는 데 오늘 처음 보는 듯한 착각이 일어난 것이다. 사람의 눈은 현상적인 물체 밖에 보지 못한다. 어떤 존재물즉, 가시적 존재만 분별할 수 있다.

지혜의 눈 밝히도록

그러나 마음의 눈, 의식의 눈은 지금 여기에 없는 모든 존재, 의식을 하나 빠짐없이 요량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응여시관(應如是觀;마땅히 이와같이 관찰하라)하는 지혜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

사람은 여시관하기도 합니다만 현재의 사실만을 볼 수 있다. 사람은 삼세를 응여시관하는 더 높은 지혜의 눈을 갖지 못하였다. 한계상황이 언제나 사람 앞에 부딪치게 된다. 그 한계가 바로 현실인 것이다.

또한 이처럼 여시관하는 생명체는 여시행(如是行), 여시생(如是生)한다. 그러므로 윤회하는 것이다. 윤회한다고 하면 신비주의나 이상한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사람은 생명의 수레에 실려가고 있으며, 또한 생명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능전자(能轉者)이다. 바로 전륜하는 실체이다. 우주륜(宇宙輪)을 돌리고 있으며 그 우주륜에 판박혀 있는 역사의 인각을 새기면서 회전하는 것이다. 즉 업의 드러남이며, 이 업이 무한히 전륜하듯 우리의 삶도 윤회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여도 삼세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 법구경에서 말하고 있다. 바다속, 바위굴, 허공에 숨을 수 있다해도 사람의 행위는 어디를 막론하고 따라 나서고 다시 업과의 결과를 환하게 증시한다고. 그러므로 삼세는 있는 것이고 또한 삼세윤회는 불교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주적 시간이 아니겠는가.

"글 쓰려 81세에 컴퓨터 배워"

산문밖의 수필 — 출판외길 50년 현암사 설립자 조상원 씨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나이가 많다는 것뿐인데, 그것도 자랑할 축에 끼어주나."

그래도 결길 넘보지 않고 50여년을 오직 출판사업에 매진해온 분의 세상사는 얘기가 소중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도서출판 현암사의 설립자인 조상원 회장은 대답대신 책 한권을 건넨다. 〈삶에 이르는 삶〉

"이 책에 담은 토막글들은 내가 오랫동안 일하며 살아오면서 이따금 생각난 것들을 적어둔 것인데, 그중에서 무언가 뜻이 있을 법한 것들을 싣은 거예요. 바라건대, 내 뒤에 오는 젊은이들 중에서 한구절이나마 가슴에 닿는 것이 있다면, 참된 삶에 이르러 보겠다고 살아온 나의 삶의 보람이라 할까…"

삶은 때로 발랄하고, 겨울 이른 아침 신선한 공기처럼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의 나머지 시간들은 형체도 없이 버겁고 남의 살처럼 무덤덤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생을 일러 '일체개고'(一切皆苦)라 했던가.

그렇다면 80여 성상(내년이면 여든네살이 된다)의 노안이 되돌아보며 들려주는 삶의 형체는 무엇일까.

"시공에 안 보이는 신에 의탁할 건가. 제 운명 제 나름이라, 삶이란 무엇인데…." 그의 대답은 질문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일과 성실, 자기성찰의 명제로 이어진다.'

그는 별로 재미없이 살아간다. 쉬는 날 가까운 이들과 어울려 건강도 돌볼 겸 산에 오르거나, 화초에 취미붙여 어린 손자 돌보 듯 애지중지하는 일밖에도 없어보인다. 매일 아침 10시면 아현동 2층 누옥의 사무실로 출근해 해질녘까지 원고를 쓰고 다듬는 일을 반복한다.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일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아내는 질투하기도 했지."

그가 출근하는 사무실은 회장실이지만, 여느 출판사의 사무실과 다름없다. 6평 남짓한 방에 들어서면 가장 가까이에 명패도 없는 그의 책상이 있고, 오른쪽 건너편 창가에 법전편찬 작업을 함께하는 다른 직원의 자리가 있다. 그 중간에는 네명이 앉으면 그만인 소파가 누추하다. 그밖에 책장과 시계, 액자 몇 개가 이 곳을 장식하는 소품의 전부다.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책상에 놓인 노트북컴퓨터이다. 재작년 병을 얻어 병원 신세를 지고나니 손이 떨려 원고를 손으로 쓰기가 힘들었다. 원고 쓰는 일은 그의 평생의 일. 죽는 날까지 글쓰기. 그래서 130만원 주고 사서 배웠다. 그때 나이가 여든한 살. "남들은 왜나 신기한 일로 여기더구먼."

이 노트북에는 쉰 권이 넘는 글이 저장돼 있다. 내년에 펴낼 '법(法)수상집' 원고다. 오늘은 4-3을 쓸 생각이다. 4-3은 수상집에 실릴 원고의 장·절을 구분한 것으로, '두드려진' 원고는 서랍 속에 나뉘어 보관되듯 수치에 따라 분류되어 저장된다.

'법'은 그의 특별한 관심사다. 1945년 현암사를 창립, 〈세익스피어 이야기〉를 시작으로 '현암문고'를 냈다.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출판업 또한 명맥을 잇기에도 곤궁한 시절이었다. 그래도 10여년을 버텨왔다. 오늘의 현암사를 있게 한 '효자'를 1959년에야 얻는다. '처음으로 대히트를 쳤다'는 '법전'이 그것으로, 국내 최초로 펴낸 대한민국 법령집이다.

이후 오늘까지 40년의 세월을 법에 매달렸다. 출판사의 모든 일은 일찍이 아들에게 물려주었지만 법만은 그의 것이다. 그래서 직함이 회장이지만 현암사의 법전편찬부 책임자 이상의 일은 아들의 몫이다.

"명상이라 할까, 나름대로 선 비슷이 매일 아침 30분씩 정좌하지. 요가도 한 20년 했어. 이만치 건강하게 사는 이유야. 돌때는 일이지. 조금씩이나마 일을 하니까 그렇지 일에서 손을 놨으면 치매에 걸렸던지 병신이 되었거나 했겠지."

아침은 그는 아내가 질투할 만큼 일에 매달린다.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에는 전날 미리 챙겨간 일보따리를 풀어놓아야 한다.

>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일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아내는 질투하기도 했지."*

"일에 열중하다보면 기적도 옵니다"

일이 그의 삶의 뼈대를 이루었다. "일에 열중하다보면 기적이 온다. 그러나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겐 기적이 없다."

'야삼경에 대문 빗장을 만져보라'는 경봉선사의 임종게도 그는 일로써 풀이한다. "야삼경은 밤11시부터 이튿날 1시까지를 말하니 만물이 잠든 시각이다. 도둑이 침범할 때도 이때이다. 그러고보면 사람들의 방심을 경계한 말로 풀이되기도 한다."

그리고 30년도 훨씬 넘은 시절에 들었던 얘기 하나를 전해준다.

옛날 프랑스의 조그마한 개인 은행에 어떤 아가씨가 찾아왔다. 여직원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이 은행에서는 이미 직원채용을 마감한 뒤였다. 아가씨는 무안한 듯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걸어나오다가 마루바닥에 핀 하나가 떨어져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주워서 탁자 위에 얹어놓고 나오려 하는데 이것을 보게 된 은행장이, "잠깐, 아가씨 이리 와요"하고 불렀다. 은행장은 웃음을 지으면서 "그 핀 하나를 아낄 줄 아는 아가씨가 아주 기특하군. 내일부터 출근하도록 해요…" 이 아가씨는 후일에 이 행장의 며느리가 되었다.

그의 뼈대가 일이었다면, 성실과 자기성찰은 피와 살을 빚었다.

"마음 가는 곳에 몸이 가니 몸의 주소는 없는 것이로다. 한 발자욱 물러서서 보자." 〈정성은 기자〉

"동림동문회를 이끌어갈 임원단이 새로 조직개편 되었습니다"

지난 10월20일 남장사에서 열린 동림 동문회에서 동문회를 활성화하고 후배 양성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임원단을 다시 조직 개편하였습니다.

참석치 못한 동문 스님들을 위해서 새로 추대된 스님과 새로 조직된 운영위원과 회장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참석해 주신 많은 동문 스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애써주신 전회장단 스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락처 : 서울 연락사무소 : 능인정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230-8호

☎ (02)462-1335, FAX(02)462-1339

임 원 진 명 단

자문위원 : 대우스님 진명스님 성진스님 자용스님 시몽스님 법우스님 지안스님 혜인스님 종림스님 지광스님 서암스님 동명스님 고담스님 진영스님 지담스님 현성스님

운영위원 : 전회원스님

회 장 : 성웅스님

수석부회장 : 송암스님

부 회 장 : 효정스님 지암스님 원산스님 혜연스님 연담스님 송묵스님 운월스님 현광스님

감 사 : 정진스님 도공스님 법정스님

사무총장 : 법경스님 차장 경진스님

기 획 실 : 장적스님 대현스님 혜연스님 송묵스님 청암스님

사 무 국 : 1국 현도스님 2국 법성스님 3국 자음스님 4국 정우스님 차장 재현스님 차장 현조스님 상덕스님 성지스님

총무부장 적일스님 재무부장 일법스님 교무부장 현정스님 섭외부장 진우스님 차장 귀영스님 차장 보명스님 차장 연암스님

봉사부장 법능스님 포교부장 도정스님 차장 석현스님 차장 성현스님

동림동문회 사무실 연락처 및 각기 대표 연락처

졸업회수	기대표	직 책	성 명	사찰명	전 화
1 기	총회장	회 장	이성웅스님	남 장 사	(0582)34-6331 31-0047
1 기		사무총장	조법경스님	능인정사	(02)462-1335 FAX 462-1339
	1	기획실장	노장적스님	전륜왕사	(02)888-6300
1 기	회 장		지 암스님		(015)232-8823
	1	국 장	김현도스님	법안정사	(02)642-0364 646-4975
2 기	회 장 1		박혜연스님	능 천 사	(0334)72-9315 012-221-6564
	2	국 장	김법성스님	불 국 사	(02)577-3994
3 기	회 장 1		김송묵스님	봉 선 사	(0346)68-1951 554-6820 011-252-5389
	3	국 장	방자음스님	연 화 사	(02)964-6167 962-6186 962-3174
4 기	회 장 1		박현광스님	보 문 사	(042)253-6271 (02)736-6203
	4	국 장	이정우스님	선 학 원 대 각 사	(02)765-0972 763-7158
1 기		총무부장	김적일스님	보 현 사	(02)333-3769
1 기		재무부장	김일법스님	진 관 사	(02)357-0195

동림동문회 회장 성 웅 합장

왜란·호란후 승병 사원복구 투입

양은용 교수 발표

전투서 갖춘 군대체제 활용
호국이념 담은 불사에 전력

조선중기 양란(1592-1636)후 대단위의 의승군(義僧軍)이 사원건립불사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원광대 양은용교수는 지난 3일 한국종교학회 추계발표회서 「왜란·호란 후 불교의 승군의 동향」을 통해 종래의 연구가 승장을 중심한 인물중심, 중앙조직 중심의 단편적인 연구에 그친 상황에서 왜란·호란후 승군의 전국적인 동향을 분석했다.



◇양은용교수

양교수는 전투에 참여한 의승군의 난후 동향에 의문을 품고 "병기를 쥐고 전투 임무를 수행했던 대부분의 승병들이 수행승의 모습으로 복귀하였을까" 하는 점에 주목했다.

종래 이에 대한 연구성과가 부족하던 중, 다행히 양란이후에 건립된 전주 송광사의 개창비(開創碑;1636)와 최근에 양교수에 의해 확인된 수점의 복장기(腹藏記)가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어 이러한 의문이 어느정도 풀렸다는 것.

양란 후 영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사원이 재해를 입었고, 각처의 전투에서 많은 의승군이 목숨을 잃었다. 정유재란(1597) 당시 천여명의 의병과 함께 백5십여명의 승군이 전몰(全歿)한 지리산 석주관(石柱關)전투 등 곳곳의 항전에서 이때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양교수는 승군의 막대한 피해가 양난 후에 지리산 화엄사 등 각처의 대대적인 중수불사(重修佛事)를 일으키게 했다고 밝혔다.

의승군의 조직은 1592년 노대덕인 서산당(西山堂) 휴정(休靜;1520-1604)이 선조로부터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을 제수받고 천명한 구국봉기에 거교적 전국적으로 호응하면서 이뤄졌으며, 대체로 그의 문도가 구심점이 됐다. 의승군 조직이전에 승병활동을 했던 충청도의 영규(靈圭)나, 강원도에서 일어나 휴정을 계승한 사명당 유정(惟政), 호남의 처영(處英)과 경헌(敬軒), 경기도에서 일어난 법견(法堅) 등의 승장이 한결같이 휴정의 제자이다. 승군의 전국적인 규모는 5천명을 헤아리며, 중앙집권적 성격의 조직으로 파악된다는 것이 양교수의 분석이다.

하지만 승군활동의 실상은 전국적인 세력을 결집한 중앙조직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전라좌수영의 이순신 휘하에 의승수군(義僧水軍)조직이 활약했던 것처럼, 중앙조직과는 전혀 별개의 대소 단위가 전국적으로 적지않게 존재했다. 종래 이 방면의 연구가 소홀했으나, 각처의 향토지나 사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 상당부분을 새롭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란 게 양교수의 지적이다. 양교수는 "임란후 대단위의 의승군이 승군활동에서 갖추어진 몽어력 아래 국난으로 피폐된 사원을 복원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며 "그들이 마련한 불사의 가람배치는 한결같이 사천왕상을 조성해 불국토를 수호하려는 호국이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 불교방송 학술조사단의 발굴작업 모습

"남해군 고현면 일대서 팔만대장경 조판한 듯"

불교방송 학술조사단 보고서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일대가 팔만대장경을 조판한 곳일 가능성이 크다는 학술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불교방송 학술조사단(단장 강한필)이 8개월여간 밝혀낸 자료들로 엮어져 있으며 문헌, 지표조사 작업의 성과들을 일목요연하게 모은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조사단은 분사도감의 터와 일연스님의 12년에 걸친 남해 주석의 개연성을 접합시키고 있어 이 분야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고서는 오는 20일 출간 각계에 배포될 예정이다.

불교방송 학술조사단이 보고서의 출간에 앞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남해군 고현면의 대사리 선원리 성산리 일대에서 대장경 조판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유물들이 다량 수습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연스님이 설립한 정림사도 이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일연스님이 팔만대장경 조판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

보고서의 문헌조사부문에는 '고려대장경의 민족문화사적 가치' '고려대장경 판각장소에 대한 연구성과의 검토' '분사대장도감의 위치와 역사와 분사도감 추정지의 지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지표조사 결과 부문에는 고현면 대사리 주변유적 '대사리 주정 건물지의 현황과 유물' '선원리 추정 건물지의 현황과 유물조사 결과' 등이 56장의 사진과 48종의 도면, 삽도등으로 구성돼 있다.

〈임연태 기자〉

□ 종월스님 석사논문 눈길



◇종월스님

출가승려의 연령과 학력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맞게 승가교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동국대 교육대학원 종월스님이 동국대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승가의 교육제도 개선방안」이 바로 그것.

논문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하고 병역의무를 필할 나이인 29세를 넘어 출가하는 비율이 60년대 10~15%, 70년대 19~34%, 80년대 19~43%에서 90년대에는 50~72%로 크게 높아졌다. 출가시 학력도 대졸이상

"先 교육 後 득도제 정착 시급"
출가연령·학력 높아져 승려교육 개선 필요"

이 70년대 8~20%에서 80년대 13~28%, 90년대에 들어서는 30%선으로 높아져 고령화·고학력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불교계는 승가교육의 환경개선을 통해 수행자의 생활이 사회를 앞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유능한 인재가 입산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종월스님의 지적이다.

종월스님은 "승가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출가자에게 선교육 후득도의 접근방법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대학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출가의 나이도 대학을 졸업한 후 병역을 필한 뒤(남자의 경우)로 규정해 29세후에 득도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처님 당시의 출가제도를 보면 수행자는 곧 사회적 지도자인 동시에 종교 교육자가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스님의 설명.

종월스님은 교육이 곧 그 집단이 발전하기 위한 근본이기 때문에 불교 발전을 위한 강원교육은 체득과 실천으로 직결되는 수행교육이 병행되야 하고 교습방법은 현대교육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월스님은 "고학력화 시대에 승려가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출가를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이 우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동학혁명 당시 승려 활동 있었다"
이이화씨 주장

동학농민전쟁 당시의 불교계 역할을 조망하는 학술행사가 전무한 가운데 불교문화교육연구소(소장 인묵)가 지난 10일 현대불교신문사 지하 다원 녹수청산에서 '불교와 동학'이란 주제로 학술강연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초청강사로 나온 역사문제연구소 이이화소장은 「불교와 동학·동학농민전쟁」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이소장은 "동학농민전쟁(1894) 당시의 불교의 역할을 조선후기 민중운동과 연결지어 규명해 보려했다"고 말하고 불교와 동학사상과의 관계, 동학농민전쟁시 승려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이소장은 최제우가 32세(1855)에 경주 용담에서 수양할 때 금강산 유점사에서 승려가 〈어불어유지서(於佛於儒之書)〉를 가지고 찾아와,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듬해 양산 천성산의 승려와 함께 49일 기도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동학사상에 나타난 내용은 유교의 수양과 순환론을 주로 강조했고 주역(周易)의 후천개벽설이나 정감록적 분위기가 가미돼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시대의 승려는 성역(城役) 등 칠반천역(七般賤役)에 속했기에 사회적 지위는 하층민에 속했다. 농민전쟁 당시 승려들은 산적·화적(火賊)과 행동을 같이 하거나, 병란(兵亂) 등을 일으킨 변혁세력과 연결돼 동조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이소장의 분석이다.

못배우고 가난한데 공부될까요

문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느모로 보나 내놓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지요. (경기 안양시 안양8동·장운산)

답 부처님께서 일찍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아니 계셨다 해도 일체가 다 불성인 까닭에 차별이 없습니다. 못났다 잘났다 하는 것이야 세간의 얘기이고, 아무려나 자기의 근본을 믿는 그 마음의 능력이란 태산을 짊어지고도 힘이 남고, 우주까지도 품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못해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한시바삐 더욱 간절하게 단단한 믿음으로써 몽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치의 틀림도 없이 마음의 근본자리에서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딱 뒤집어 놓거나 바로 세울 수 있는 용기와 패기를 생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다리는 절름발이며, 한쪽 눈은 장님이며, 한쪽 귀는 귀머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도리를 보지 못하고 물질로만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음이란 빛으로 말하면 레이저보다 더 합니다. 그러니 어떤 개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전체 한 덩어리의 불기둥—이름하여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둘이 아님을 굳게 믿고 되는 것 안되는 것, 높은 것 낮은 것 일체를 다 그 불기둥에 넣어 태워버리십시요. 우주가 들썩거리는 그 도리에 잘나고 못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왜 생사가 있었지요

문 12연기란 줄여 말하면, 무명이 있기에 생로병사가 있고 무명이 없으면 생로병사가 없다는 말인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분명코 무명을 여의신 분인데 어째서 늙고 죽음이 있었는지요?

(마산시 합포구 남성동·이자우)

답 부처님께서 그에 대해 말씀을 안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못 알아 들은 것이군요. 본래 죽는 것은 없고 사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도 보실 줄 아는 분은 생로병사가 '무'라 할 것이고, 보실 줄 모르는 분은 몸뚱이가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할 것입니다.

도리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도리를 알면 온 것이 없으니 갈 것도 없는 것을 생각을 지어서 죽었느니 살았느니 야단입니다. 따지고 보면 옷이 헤지고 바래지고, 또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훌훌 벗어던지고 새 옷을 갈아 입는 것과 같은데 죽었다 살았다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도리를 알면 그냥 여여함이지요.

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문 저는 꿈을 자주 꾸는 편입니다. 가끔은 앞일을 예고하는 듯한 꿈도 꾸는데 그때 그것을 무시했다가 낭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꿈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는지요.

(서울 강서구 등촌동·주희경)

답 지금 생시에 하는 것도 꿈입니다. 요렇게 하리라 조렇게 하리라 하는 것도 꿈이요, 자면서 꾸는 것도 꿈입니다. 그러니 꿈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꿈 잘 꾸어라 하는데 잘 되라는 뜻으로도 말하지요? 그러니 꿈을 꾸고 안꾸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입니다. 나쁜 꿈을 꾸었으니 나쁜 일이 생기려나 하고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기겠죠.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바꿔서 이것은 나를 가르치는 꿈, 나를 이끌어 주는 꿈, 좋은 꿈이다 라고 생각을 돌려서 그 꿈을 꾸게 한 자리에 되놓으십시요. 생시에 무슨 생각이 일면 그것도 마음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꿈 해몽도 실천의 한 생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이 생각나질 않는데요

문 저는 여러해 전부터 사찰에 다니며 스님의 설법을 많이 들어 온 편입니다. 그런데 뭔가 질문을 드려야 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막상 기회가 와도 질문할 거리가 생각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전 중구 선화동·양춘빈)

답 거기엔 다른 도리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엎어지면 엎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나지 허공을 허우적대며 일어나는 건 아니듯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난 의정은 그 자리에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상대가 있는 것이지 나오질 않았다면 상대가 없고, 그냥 '무'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내 탓으로 돌리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있으니 부딪힘도 있는 것이지 내가 없다면야 부딪힘도 '무'이겠지요.

공부하다가 생기는 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자리에서 나온 것이니 내 자리에서 풀어야지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설혹 제3자 한테 물어서 답을 얻고자 한들 그것은 '내 배가 고프니 내 대신 밥을 먹어 달라'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의정은 내 속에서 나온 것이니 나온 그 자리에 되놓고 거기서만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 답답한 속을 누구에게 물어보냐? 어떤 책을 보아야 하나? 하지 마시고 그 답답한 것까지도 다 마음자리에서 그렇게 한 것이니 해답도 그 자리에다 맡겨놓고 거기서 풀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가 빨리 됩니다. 또 그래야 한가지 수학이 풀리니 만가지 수학이 풀리는 도리를 차츰 알게 됩니다.

질문이라는 것도 억지로 지어서 하는 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건 알음알이를 짓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의정 자체가 진짜 자기 것일 때 해답도 진짜 자기 것이 됩니다. 또 제 의정을 남에게 물어 답을 찾는 것은 애써 맺돌을 돌리면서 빈 맷돌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분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꿈과 사랑을 가르쳐주는 「어린이 불교성전」

「어린이 불교성전」으로 아이들에게 불심을……



거리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밝고 맑은 모습을
볼때마다 '부처님 말씀을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꿈과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
인격형성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나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어린이 불교성전' 은
우리 믿음의 뿌리요 불교의 미래인 어린불자들에게
바른 불교문화를 알게 하고 더 나아가 부처님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경전입니다.



어린이 불교성전
큰묶음 하나.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큰묶음 둘.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큰묶음 셋. 거룩한 스님께 귀의합니다.
큰묶음 넷. 여섯가지 바른 삶
큰묶음 다섯. 다듬어 가꾼 믿음



- 어린이 불자들의 필독서
- 어린이 법회용
- 어머니와 함께 보는 경전

정가 : 9,000원

도서출판 단이슬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38-22

책 구입처 단이슬 • 267·8101 법련사 • 733·5322, 723·0423 총판·운주사 • 720·9372~3, 735·9170 도서출판 「단이슬」은 어린이 포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려 합니다.



수 요 인터뷰

"전통계승·새문화 창조 도량으로 가꾸겠습니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초대원장

장한기 박사

불교와 연계 … 현장 통한 이론정립에 역점

국내 대학중 최초로 설립된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의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장한기 교수(65)는 대학원 개원에 따른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교수님 초대 대학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의 설립 의의는 무엇입니까.

▲우선 이같은 훌륭한 도량이 우리 동국대에 생길 수 있도록 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라 생각하고 첫 문을 여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예술대학원은 동국대가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교육도량입니다. 그간 동국대가 쌓아 온 문화 예술 방면의 역사를 바탕으로 국내외에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되게 노력할 것입니다.

문화예술대학원의 설립 의의는 무엇보다 먼저 고급문화 인력의 배양터전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폭넓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특히 불교문화와 불교예술에 대한 장족의 발전이 이 대학원을 통해 기약될 것으로 보여 21세기의 불교문화 산실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학원의 개설학과와 이수과정을 소개해 주십시오.

▲신입생 모집은 마감이 됐습니다. 새해부터 개강하게 되는데 크게 불교예술부문과 연극영화, 문예창작부문으로 나뉘어집니다.

세부적인 학과는 불교미술학과 불교음악과 문화재과 연극과 영화영상과 문예창작과 등 6개 전공학과로 분류됩니다. 과정은 석사과정과 연구자·관리자과정으로 나뉩니다. 특히 연구·관리자 과정은 현재 활동중인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아카데미즘 보다는 응용부문에 역점을 두어 강의도 매우 신선하게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신선한 강의란 계획에 관심이 가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예를 들자면 현장실습이나 특강 등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원로 예술인을 초빙해 부담없는 대화의 자리도 만들고 문화현장 기행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해당학과별 소모임도 활성화 시켜 작품발표회나 연구 발표의 기회를 많이 만들 것입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참여가 기대되고 그를 통한 문화예술의 발전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같은 학생들의 활동은 결국 불교포교와도 관련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포교는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서로의 믿음을 열 때 포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나 예술의 마당은 무엇보다 감동과 흥미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포교에 매우 적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예술대학원은 불교문화와 예술의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기대이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불교관련 학과가 많은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만 우리 민족의 문화와 예술치고 불교와 동떨어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대학원은 우리가 잃어버린 불교의 찬란한 문화예술을 잇는 튼튼한 가교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목련희」가 아직도 잘 전해져 오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원효의 무애춤을 계승한 아파용(阿波踊)이란 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불교의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늦게나마 대학원이란 교육도량을 통해 묻혀있는 불교문화를 발굴하고 계승시키는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소중한 자료사진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친 은해사에서 스님들이 연극을 하는 장면입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그런 자리가 마련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근세까지도 사찰에서는 극을 통한 포교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대학원에서는 이처럼 잊혀진 전통문화예술을 발굴해내고 계승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대학원은 동국대가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교육도량입니다. 그간 동국대가 쌓아 온 문화 예술 방면의 역사를 바탕으로 국내외에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되게 노력할 것입니다. 문화예술대학원의 설립 의의는 무엇보다 먼저 고급문화 인력의 배양터전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진의 구성이 필수적일 것 같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각 방면에서 대가(大家)를 이룬 분들을 국내외를 막론하고 초빙할 생각입니다. 지나치게 학문위주로 흐르면 현실과 멀어질 우려가 있는만큼 석사과정 이수자에게는 전문학문을, 연구·관리자 과정 이수자에게는 실질적인 기량증대를 꾀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같은 원칙아래 훌륭한 교수진을 영입할 계획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동국대학과 남다른 인연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일생이 이곳 목멱골에서 이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내년이 정년퇴임인데 58년부터 근무했으니 짧은 시간은 아니었군요.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교수중에는 가장 오래 이곳에 살았습니다. 선친께서도 중앙불전에서 공부하셨고요. 젊은 시절 서라벌 예술대학에서 몇년 강의한 것을 빼고는 35년 가까운 시간을 동악에서 보냈습니다. 물론 저도 이 학교의 국문학과 출신입니다.

—연극영화과를 개설한 산파역을 맡으셨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1년에 연영과가 개설됐습니다. 당시 저는 교무과장을 맡고 있었고 백성욱박사께서 이사장·동창회장·총장직을 다 맡고 계셨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치진씨와 친분이 두터웠어요. 그래서 동국대에도 연극학과를 만들고 싶어 유치진씨를 백성욱박사에게 소개했지요. 유씨는 저의 뜻을 백박사님께 전했는데 백박사님은 쾌히 승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락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당대 최고의 극작가인 유치진씨가 강의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유씨는 그 뜻을 받아들였고 정부기관에서도 어렵지 않게 연극영화과의 개설을 허가해 줬습니다.

당시를 회고해 보면 모두가 일이 잘 되려고 좋은 인연으로 모였던 것 같습니다. 학과 개설 후 유치진 씨와 제가 학과를 이끌었는데 전국 대학 연극경연대회의 초창기에는 동국대 팀이 늘상 1등을 차지했지요. 그런 기량들이 조금씩 전통으로 쌓여진 것도 부처님 가피라 생각합니다.

— 지금 본관에 있는 소극장도 그때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과개설 몇년 후에 지은 것인데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소극장인 셈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 극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기량을 닦고 있고요.

—금년에 〈중국과 러시아의 문화산책〉과 〈일본의 뿌리 한국문화〉라는 두권의 탐사기를 펴내셨는데 그 책들을 통해서도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자주 언급하셨더군요.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 저는 우리 역사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세 나라의 문화학술 관련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탐구해야 할 우리 민족의 본래 모습을 많이 발견한 것입니다. 세 나라의 문화학술 관련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탐구해야 할 우리 민족의 본래모습을 유추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묻혀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모습이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 나라에 잔재된 문화의식과 예술작품들과 우리의 역사 문화의 연관성을 나름대로 검증해 봤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문화의 계승발전 방향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사회는 과학문명의 발달 속에 인간성의 상실이 가장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대두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이같은 인간성의 상실을 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이 바로 문화와 예술입니다. 특히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은 '인간구제' '개달음의 사회 건설'에 기여해야 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발전계승돼야 할 것입니다.

대담 : 임연태 기자

KAL WORLD TOUR KAL 월드투어

불기 2539년

성도절 기념 大법회를 부다가야에서..

불자 여러분의 요청에 의하여 '94년에 이어 '95년에도 기획한 성도절 기념 특별상품

94년 1월 2차에 걸쳐 성공적인 성도절 대법회 참가행사를 불교방송(BBS)과 공동주관한 한진관광이 첫 행사에서 얻은 큰 호응과 불자 여러분들의 요청에 힘입어 95년 1월 성도절 대법회에 참가하실 기회를 또다시 마련했습니다.

"신심으로 성지를 순례하면 천상계에 환생하리라"
— 부처님 말씀 중에서 —

서울⇔델리 직행(2회)
대한항공 특별 전세기 운행

일반여행법 등록 제 8호

●1차 : '95. 1. 6~1. 15. (9박 10일)
●2차 : '95. 1. 14~1. 23 (9박 10일)

불교 성지순례 10일	
요금	₩ 1,240,000
경유지	델리, 알라하바드 (1 - 바라나시 (1 - 부다가야 (2박2일)) 기로, 나란다, 파트나(바이샬리, 쿠시나가르(루비니, 빌랑프러 (1 - 라니우, 이그리 (1 - 델리 (1 - 기내 (1
식사	조식 8회/중식 8회/석식 8회/기내식 3회
호텔	1급 2인 1실 기준(단 부다가야, 쿠시나가르, 빌랑프러 지역 4인 1실)

인도 문화여행 10일	
요금	₩ 1,400,000
경유지	델리 (1 - 바라나시 (1 - 카쥬라호(1 - 아그라 (2 - 파테프러시크리, 자이프러(2 - 델리 (1 - 기내 (1
식사	조식 8회/중식 8회/석식 8회/기내식 3회
호텔	1급 2인 1실 기준

• 상기요금에서 인도, 네팔 비자요금 W19,000은 불포함입니다.
• 가까운 여행사에 문의하셔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 신청금 W100,000 한일은행 009-03-011006 (주)한진관광
• 정부인가 조건임.

후원 : BBS 불교방송 인도관광성 대한항공

韓進觀光
서울시 중구 봉래동 132-4
예약문의: 726-5763~4 5771.73
서울:(02) 726-5750 대전:(042) 252-2034
부산:(051) 463-2115 대구:(053) 254-3001
경주:(0561) 745-3070 광주:(062) 228-0041
제주:(064) 42-7217

다시 푸는 경서

초발심 자경문 (8)

人有古今 法無遐邇 人有愚智 道無成褒
(인유고금이언정 법무하이하며 인유우지나 도무성쇠나니)
雖在佛時 不順佛教則何益
(수재불시나 불순불교즉하익이며)
縱值末世 奉行佛教則何傷
(종치말세나 봉행불교즉하상이리오)
故 世尊 云 我如良醫 知病設藥
(고로 세존이 운하사되 아여양의라 지병설약하니)
服與不服 非醫咎也 又如善導 導人善道
(복여불복은 비의구야며 우여선도하여 도인선도하나)
聞而不行 非導過也 自利利人 法皆具足
(문이불행은 비도과야라 자리이인이 법개구족하니)

사람엔 옛사람과 지금 사람이 있을지언정 법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으며 사람엔 어리석고 슬기로움이 있을지언정 도에는 성하고 쇠함이 없나니 비록 부처님 재세시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으며 비록 말법시대를 만났다하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한다면 어찌 해로움이 있으리오 고로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좋은 의사와 같아서 병을 알아 약을 주노니 먹고 안 먹고는 의사의 허물이 아니며 (나는) 또한 좋은 길잡이와 같아서 길을 잘 인도하되 듣고도 가지 않는 것은 길잡이의 허물이 아닌 것이라, 제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것이 법에 다 갖추어져 있나니

若我久住 更無所益 自今而後 我諸佛子
(약아구주라도 경무소익이라 자금이후로 아제불자가)
展轉行之則如來法身 常住而不滅也
(전전행지즉여래법신은 상주이불멸야라시니)
若知如是報恩恨自不修道 何患乎末世也
(약지여시리즉단한자불수도언정 하환호말세야오)
伏望 汝順興決烈之志 開特達之懷
(복망하노니 여순흥결렬지지하며 개특달지회하고)
盡捨諸緣 除去鄙到 眞實爲生死大事
(진사제연하고 제거전도하며 진실위생사대사하여)
於祖師 公案上 宜善參究
(어조사 공안상에 의선참구하여)
以大悟爲則 切莫自輕而退屈
(이대오로 위칙하고 절막자경이퇴굴이어다)

만약 내가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있다해도 다시 더 이로운 바가 없을 것이라 지금으로부터 나의 여러 제자들이 법을 널리 펼치고 행할 것인 즉 여래의 법신은 (시방삼세에) 상주하여 멸하지 않느니라"하신 것이다.

만약 (여래의 법신은 상주불멸인 줄로) 이같이 진리를 알은 즉 다만 제 스스로 닦지 아니함을 뉘우칠지언정 어찌 '말세로다' 하고 근심하리오. 엎드려 바라노니 그대는 모름지기 결연하고 맹렬한 뜻을 일으키며 궁극의 이치를 깨우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세속 인연을 말끔히 여의고 (그림자같은 경계에 끄달리는) 뒤집힌 생각을 몰락 놓으며 참으로 생사의 큰 일(일생 일대사 깨우침)을 위해 조사들의 가르침(공안)을 따라 마땅히 잘 참구하여 대오 견성을 철칙으로 삼아 부디 제 자신을 업수히 여겨서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할지어다.

惟斯末運 去聖時遙 魔强法弱
(유사말운에 거성시요하여 마강법약하고)
人多邪修 成人者少 敗人者多
(인다사치하여 성인자소요 패인자다며)
智慧者寡 愚痴者衆 自不修道 亦惱他人
(지혜자과요 우치자중하여 자불수도하고 역뇌타인하나니)
凡有障道之緣 言之不盡 恐汝錯路故
(범유장도지연은 언지부진이라 공여착로고로)
我以管見 撰成十門 令汝鑒策
(아이관견으로 찬성십문하여 영여경책하니)
汝須信持 無一可違 至禱至禱
(여수신지하여 무일가위하길 지도지도하노라)

생각컨대 이런 말법시대에 부처님 가신지 아득하여 마군은 강성하고 정법은 약해져 사람마다 삿되고 호사스럽나니 바르게 이끄는 이 적고 남을 그르치는 이 많으며 지혜로운이 적고 어리석은 이 무리를 이루니 제 스스로 도를 닦지 않으며 또한 다른 이들까지 괴롭히나니 무릇 도에 장애되는 인연은 말로 다 할 수 없느니라. 그대도 빗나갈까 두려운 까닭에 내 좁은 소견으로써 열가지 문을 가려 지어서 그대로 하여금 경책을 삼게 하노니 그대는 모름지기 믿고 간직하여 한가지도 어긋남이 없기를 간절히 빌고 비노라.

嗟曰, 愚心不學增憍慢 痴意無修長我人
(송왈, 우심불학증교만이요 치의무수장아인이로다)
空腹高心如餓虎 無知放逸似頑猿
(공복고심여아호요 무지방일사전원이로다)
邪言魔語肯受聽 聖教賢章故不聞
(사언마어긍수청하고 성교현장고불문이로다)
善道無因誰汝度 長淪惡趣苦纏身
(선도무인수여도리오 장륜악취고전신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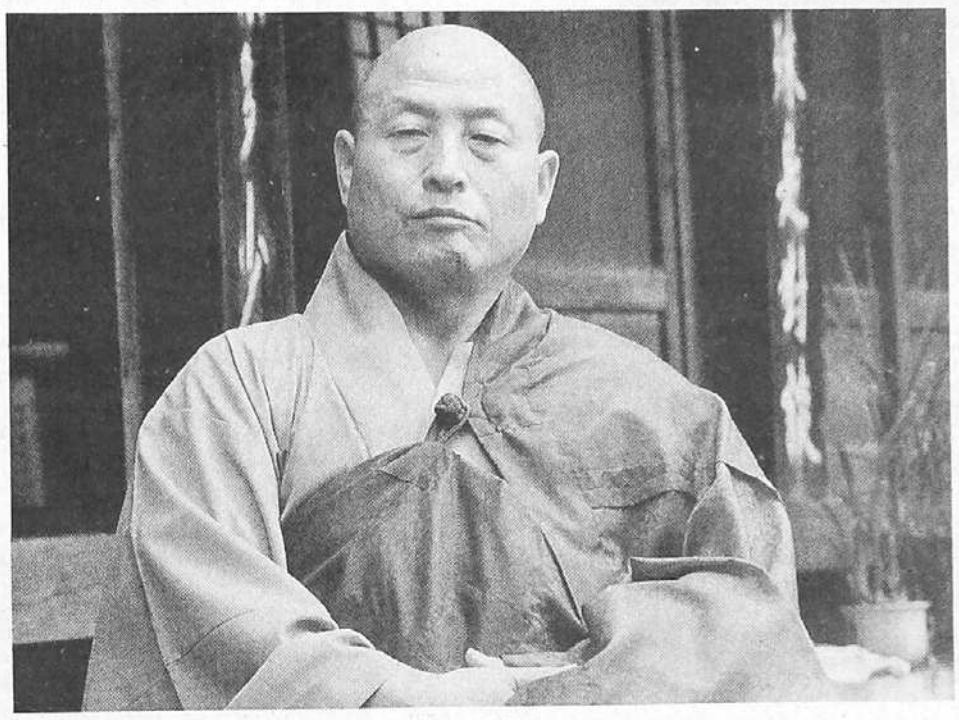
게송으로 말하리라, 어리석은 마음에 배우지 아니하면 교만한 마음만 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닦지 아니하면 아상·인상(내로다, 너로다 하는 상)만 늘게 되네. 닦은 것도 없으면서 뽐내기만 하는 모습은 마치 주린 범과 같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방탕·안일하면 마치 거꾸로 매달린 원숭이 꼴이로다. 삿된 소리 마구니 말은 즐겨 귀담아 들어도 성현의 가르침엔 귀 기울이지 않는도다. 바른 길에 인연 없음이니 누가 그대를 제도하리오. 삼악도에 잠겨 오래도록 고통에 얽매인 몸 될뿐이네.

龍眼

어리석은 마음에 배우지 아니하면 교만한 마음만 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닦지 아니하면 아상·인상만 늘게 되네. 닦은 것도 없으면서 뽐내기만 하는 모습은…

지상 법석

"효도 공덕 태산보다 높아



철 웅 스님<파계사 성전암 주석>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 자신도 미찬가지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고, 설법을 듣기 좋아하고, 늘 기도하며 훌륭한 스승을 찾아서 가르침을 받으며, 잘못을 고치고 작은 마음을 넓히려 하는 바로 이것이 참답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것입니다. 때마다 향이나 촛불을 밝히고 '복주시오, 복주시오'한다고 해서 복을 주겠습니까. 복은 비비는 손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복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

복될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은 여러가지 있읍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대보부모은중경〉에 입각하여 삶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중요한 곳을 붕독할터이니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모의 열가지 은혜를 입지 아니한 자 없건마는 처자식은 귀한줄 알면서도 부모가 병들어 외로운 방에 누워 있으면 귀찮게 생각하는 불효막심한 자식도 있나니라. 자식이 밖에서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부모는 애간장을 태우면서 걱정근심도 잊건마는 자식은 부모가 열번 백번을 잘하다가 한가지라도 섭섭하게 하면 두고 두고 감정을 품고 이해할 줄 모르는구나.

부모가 병이 들어 외로이 방에 누워 있으면 자식들에게 폐가 될까 걱정하건만 저렇게 살려면 빨리 죽는 것이 낳으련만 하는 자식도 있나니라. 만일 이와같이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아무리 공을 들여도 공덕을 받을 수 없으며, 이 다음에는 자기 자식에게 불효를 받게 되느니라. 나무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이와같은 설법을 하시자 모든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침에 감격하였습니다. 어디 부처님의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심지관경에선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큰 부자인가. 양친이 살아계심이 가장 큰 부귀니라.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궁핍한 가난인가. 부모님께서 돌아가심이 더없는 가난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란 없다가도 땀흘려 노력하면 생길 수 있고, 벼슬이란 떨어졌다가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떠나버린 부모님은 두번 다시 얼굴을 보기가 어

인간의 삶이란 변화의 연속선상에서 곡예사와 같이 연극을 하며 사는 것이라 봅니다. 그러한 연극 속에서 만나면 반드시 헤어져야 하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또한 너나 없이 때가 되면 가야만 합니다.

강건너 길메봉에 높고 낮은 저 무덤아, 영웅호걸 몇몇이며 절세가인 그 누구냐. 영웅호걸 부귀문장 모두가 쓸데 없네. 황천행을 면할쏜가. 모였던 사람 제각기 돌아가고 나니 적막한 빈 산에 외로운 무덤 뿐이로다.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우리는 무상한 세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태어났는가 하면 어느덧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는가 하였더니 얼굴에는 벌써 주름살이 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상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상하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쓰다가 갈 곳으로 가면 되는 것인가. 참다운 사람이라면 여기서 인생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비롯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그래서 공허함과 더불어 염세적 무상감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무상하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무상하므로 희망이 있고 예술과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없습니다.

향종이와 비린 새끼 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또한 일체의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간곡하게 무상법을 설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법문을 전해 드리면서 저의 사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아난에게 길가에 흘어져 있는 종이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그 종이를 주워 냄새를 맡아 보아라.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향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환을 쌓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나, 사람도 그와 같나니라. 또한 길을 가시다가 길 위에 있는 새끼줄을 보고는 주워 냄새를 맡아보라 했습니다.

냄새를 맡아본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비린내가 납니다. 너무 비린내가 나서 냄새를 맡기가 역겹습니다. 아마도 냄새로 보아 생선을 묶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나, 그럼 버리거라. 종이나 새끼줄은 본래 냄새가 없는 것인 데 무엇을 가까이 했는가에 따라 냄새가 나기도 안나기도 한다. 그와같이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처럼 너희들은 안개 속을 지나가는 사람과 같나니, 안개가 비록 비는 아닐지라도 두어 시간 그 속을 걸어가면 옷이 축축하게 젖어 버린다는 사실을 있지 말도록 하라"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마산지원

이 법 의 은 회

장소
한마음선원 마산지원
일자 · 시간
1994년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
저울이 없으니
달 것도 없어라
폭포수 꽝꽝 흘러
깊숙이
스며 흘러도는구나
"
—대행스님 법어 중에서—

법회안내
정 기 법 회 :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3시
금 요 법 회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음력 초하루, 보름정진법회 : 오전 10시 30분
거사림 법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청년회 법회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어린이 법회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학생회 법회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한마음선원 마산지원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소/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2동 405-107 ●전화/0551-42-6638~9 ●팩스/0551-21-5454

지상 법석

불효자 없어야 사회 건강"

최선 다했다 생각해도 부모사랑만 못해
원망·미움 내탓…전생에 잘못 닦은 업보

서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행복의 꽃이 피고, 행복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되도록 서로 맞추려 애쓰고, 이해하고 칭찬하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음이란 것이 눈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데로 따라 오는 것입니다.

럽습니다. 부모님 살아 생전에 어깨 한 번 주물러 드리고, 죽 한 그릇 제대로 올리지 못한 것을 후회할 따름입니다.

효도에 대해 이야기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집에 가서 〈부모은중경〉도 안 읽어보았느냐고 자식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참선을 통해 화두를 깨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묵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밉고, 곱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모두 마음 탓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질을 바꾸고 마음을 고치며 입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위대한 발심(發心)이 필요합니다. 시시 때때로 참선을 통해 발심의 불꽃이 스러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잘 써서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성불과 약속 하자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변명하길 효도를 하고 싶어도 우리 부모님은 맞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효도는 서로 맞아야 하는 데 맞질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한갓 변명에 불과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부처님 말씀에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에겐 조각난 그릇도 맞추다 보면 국보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묘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맞추려 하지 않고, 조금 깨어진 그릇이라 해서 집어 던져버리면 산산조각이 나서 영원이 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서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행복의 꽃이 피고, 행복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되도록 서로 맞추려 애쓰고, 이해하고 칭찬하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음이란 것이 눈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데로 따라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자성불과 약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흉을 보는 것, 짜증 내는 것을 뿌리 뽑겠습니다.' 그것만 뿌리 뽑아버리면 누이 좋고 매부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한다면 미움을 받는 사람만 나쁜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도 나쁜 겁니다. 가능하면 칭찬하고 자애심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선을 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참선을 통해 화두를 깨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묵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밉고, 곱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모두 마음 탓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질을 바꾸고 마음을 고치며 입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위대한 발심(發心)이 필요합니다. 시시 때때로 참선을 통해 발심의 불꽃이 스러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잘 써서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젊은이나 어린이 혹은 잔한 심보를 지닌 시부모나 자식이 있더라도 원망하는 마음 없이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생에 잘못 닦은 자신의 업보로 생각하는 것이 훔륭한 마음 자세입니다. 불교는 상대를 원망하기 보다는 모든 허물이 자신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모두가 내탓이라는 말이지요. 이와같은 마음을 부모나 자식들이 지니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화목한 가정을 만들 것입니다. 불효자가 없는 사회는 건강하고, 활기넘치며, 인간미가 솜쉬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자식은 부모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다는 〈부모은중경〉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점입니다. 요즘 자기의 부모를 버리고, 때리고 하는 일이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고도 혹여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하여 자신의 신분과 출신지를 감추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한탄하기에 앞서 사바의 업장이 얼마나 두터운지 실감했습니다. 모두가 무상한 삶의 한계를 느끼지 못한 탓이라 보지요.

효도의 세가지 방법

세번째는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세계 방방곳곳을 관광시켜드려 발바닥이 닳아서 피가 나고, 살이 닳아서 뼈가 드러나며, 뼈가 드러나서 골수가 터져 나올 때까지 공양한다 할지라도, 또 부모를 공경하고 그 뜻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 더럽고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닦아주며, 금이야 옥이야 길러주신 그 사랑스런 은혜의 만분의 일도 보답할 수 없느니라. — 나무아미타불 —

만일 어떤 사람이 흉년에 부모가 굶고 앉아 계실 적에 피를 뽑아 국을 끓이고, 뼈를 갈아 죽을 쑤며, 살을 베어 불고기를 만들어 10년 내지 2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양한다 할지라도 부모님 은혜에 만분의 일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릴 기르실 적에 사경을 헤메는 자식을 살리고자 수 많은 날을 뜬눈으로 지새웠으며, 더위와 추위도 있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이시고, 자식을 위해 먹을 것 안먹고 입을 것 안 입고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 나는 부모에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명심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공덕 중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보다 큰 것이 없고, 이 세상 죄악 중에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보다 큰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⑧

시간의 허구성

김 성 규

제논의 파라독스에는 아킬레스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거북이를 앞지를 수 없게 되어 있다. 거북이가 아킬레스보다 100m 앞서 달린다면 아무리 잘 달리는 아킬레스라도 느림보 거북이를 앞지를 수 없다는 이야기다. 아킬레스가 100m 달려올 동안 거북이는 10m 앞서 있고, 또 아킬레스가 10m 따라오면 거북이는 1m 앞서 있고 이 일을 되풀이할 경우 아킬레스는 영원히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역설이다. 이것은 시간이라는 친구를 멀리 떠나보내고 공간이라는 친구만 오랫동안 사귀어 온 허상의 산물이다. 이제는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혹시 뉴욕에 친구가 있어 전화를 건다면 "여보세요?"하는 동시에 서울에 있는 상대편에서 "여보세요"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만약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알파켄타우리에 우주여행을 갔다고 하자.

그 곳에 도착하여 지구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나 누군데, 여기 알파켄타우리야,"하고 말한다면 그 음성이 지구에 있는 친구가 듣기까지는 4년이 걸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극성은 그 곳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약 1,000년이 걸린다. 1초에 3십만km로 달리는 빛이 1,000년 동안 달려서(1000광년) 도착한 곳에 북극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림과 같이 지구와 오리온좌의 베텔류스, 황소좌의 알데바란을 한번 살펴보자. 베텔류스와 알데바란은 지구에서 300광년, 53광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알데바란은 베텔류스에서 약 250광년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런데 서기 2000년 3월 17일 밤에 베텔류스의 폭발에 의해 오리온 별자리가 파열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날짜와 여기에 나오는 다른 날짜는 모두 지구에서의 월일의 진행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표인다면 베텔류스는 300광년 떨어진 곳에 있으므로 지구에 있는 우리들은 그 별이 파열하는 날에는 보지 못하고 별이 파열할 때 생기는 광파가 우리 지구에 이르기까지는 300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하는 것은 2300년 3월 17일 밤의 일이며, 한편 알데바란에 있는 사람은 2250년 3월 17일 밤에 폭발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폭발사건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각각 다른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환소좌 알데바란에서의 현재가 베텔류스에서는 과거가 되고, 지구에서 바라보면 미래가 되는 것이다. 시간에 대한 전, 후 동시성의 개념도 관찰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결국 시간이라는 것도 공간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것이다.

불교에도 시간의 무의미함을 보여주는 많은 일화들이 있다.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왔을 때 중국 불교는 교리중심적인 형식주의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모든 형식을 타파하고 진리 자체를 추구하는 선을 가르쳤다. 이때 많은 스님들이 임금에게 "달마대사는 외도이오니 쫓여버리십시오"라는 상소를 몇 번이나 올려서 결국 사약을 내리게 하였다. 사약을 마시면서 "아아, 동토도 인연이 다 되었구나. 내가 죽거든 화장하지 말고 웅이산에나 묻어주시오." 하면서 유언하였다. 임금은 달마대사에게 사약을 내린 것을 크게 후회하면서 자신이 신으려고 만들어 놓은 새신을 달마대사에게 신겨 유언대로 웅이산에 매장하였다. 3년이 지나 위왕의 사신 송운이 인도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파미르고원에 있는 총령 고개에서 달마대사를 만났다. 반가워 인사를 드렸더니 달마대사께서 "동토는 인연이 다 하여 천축으로 가는 길이오."하면서 신발 한짝을 송운에게 쥐면서 "이 신을 임금에게 드리시고 바빠서 인사도 못 여쭙고 떠났다고 전해주시오."하였다. 송운이 위나라로 돌아와 임금에게 말씀드렸더니 달마대사가 돌아가신지 3년이 되었다 한다. 신하들을 시켜 웅이산의 무덤을 파 보았더니 관 속에는 신 한짝만 들어 있었다. 시간의 전후가 무의미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외에도 나고 죽음을 멋대로한 신라시대의 혜공스님 등 많은 스님들의 영적인 행위들이 있다.

불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눈은 공간적으로 물체의 앞 뒤가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생명에 있어서 시간적인 전후의 개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우주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상대적인 개념이듯이 불교에서도 철저하게 상대적인 인식에 불과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존재의 실상을 바로보기만 하면 어느 쪽에서 바라보더라도 같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영남대 의대교수〉

존재 실상 바로 알면 三世도 오늘과 같아
역대선사들 시공 초월 자유로운 삶 보여



아직도! 인도 성지 순례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여행번호	방문지	여 행 일 정	요 금	출 발 일			
				12월	95.1	2월	3월
INA-01	인도 10일	불교 4대 성지	178만원	12월 23일 출발			
INA-02	인도 30일	인도 전역 자유여행자를 위한 왕복 항공권		12월 23일 출발			
INA-03	인도 12일	방콕-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바람푸르)-럭나우-델리-방콕	200만원 (155만)	95년 2월 16일 3월 7일			
INA-04	인도 15일	방콕-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나지기르-파트나-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산치-아잔타-엘로라-봄베이	230만원 (200만)	95년 2월 10일 3월 3일			
INA-05	인도 17일	방콕-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기르-나란다-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럭나우-아그라-보팔-산치-잘가온-아잔타-오랑가바드-엘로라-맘마드-봄베이-방콕	260만원 (220만)	95년 2월 7일 2월 28일			
INA-06	인도 22일	방콕-카투만두-룸비니-사나울리-기원정사-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나란다-라지기르-보드가야-바라나시-상카시아-아그라-델리-보팔-산치-잘가온-아잔타-오랑가바드-엘로라-맘마드-봄베이-콜롬보-아루라다푸라-폴로나누와-시기리아-캔디-방콕-아유타야-홍콩-마카오	320만원 (270만)	95년 2월 5일 2월 19일 3월 5일			

INDIA
인도관광성

그럼, 지금 수미산 여행사로 문의하십시오.
풍부한 경험과 친절한 안내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모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인도라 하더라도
저희 수미산과 함께라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 출발예정일**

인 도	(10박 11일)	12월 23일 (인도 4대성지)	178만원
일 본	(4박 5일)	12월 24일 (오사카·나라·교토)	115만원
홍콩·스리랑카	(10박 11일)	1월 10일 (홍콩·콜롬보·캔디·불족사)	145만원
대 만	(4박 5일)	1월 22일 (불광사·일월담·타이페이)	55만원

(주) 수미산 여행사
SUMER TOUR CO., LTD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빌딩 2층
전화: (02)720-3241~7 / 팩스: (02)720-3248
국외여행업 등록 제358호

여행번호	방문지	여행일정	요금	94.12	95.1	2월	3월
SMR-01	미얀마, 태국 8일	양곤-만달레이-파간-페구-방콕-아유타야(과타야)	129 만원	2 16	10	10 21	11 22
SMR-02	일본 5일	오사까-나라-교또	95 만원	23	18	17	20
SMR-03	일본 6일	동경-나라-교또-오사카	135 만원				
SMR-04	대만 5일	타이페이-일월담-고웅-불광사-야류	55 만원	16	14	12	5
SMR-05	태국 6일	방콕-파타야-아유타야	60 만원				
SMR-06	동남아 4개국 9일	홍콩-(란타오)-푸켓-방콕-싱가폴-조호바루	115 만원	18	21	17	10
SMR-07	동남아 4개국 10일	방콕-아유타야-보루부둘-홍콩-타이페이(불광사)	155 만원		14	28	14
SMR-08	(9박 10일) 홍콩 스리랑카	홍콩-콜롬보-아누라다푸라-폴로나누와-캔디-누와라엘리야(불족산)	145 만원		10	5	17
SMR-09	(7박 8일) 태국 스리랑카	방콕-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캔디	108 만원		22	15	24

* 상기 일정중 단체 출발시에는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 상기 코스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은 불교 대하소설

수미산 〈8〉

몸을 문지르는 우녀는 허상이고 진면목은 …

인담은 저으기 놀랐다. 그가 놀란 것은 앞을 가로막은 것처럼 대담한 목욕 권유를 처녀 우녀가 거리낌없이 한 것보다는 그녀가 벌써 남녀차별을 벗어난 경계때문이었다. 그는 두손이 있되 두 손을 쓸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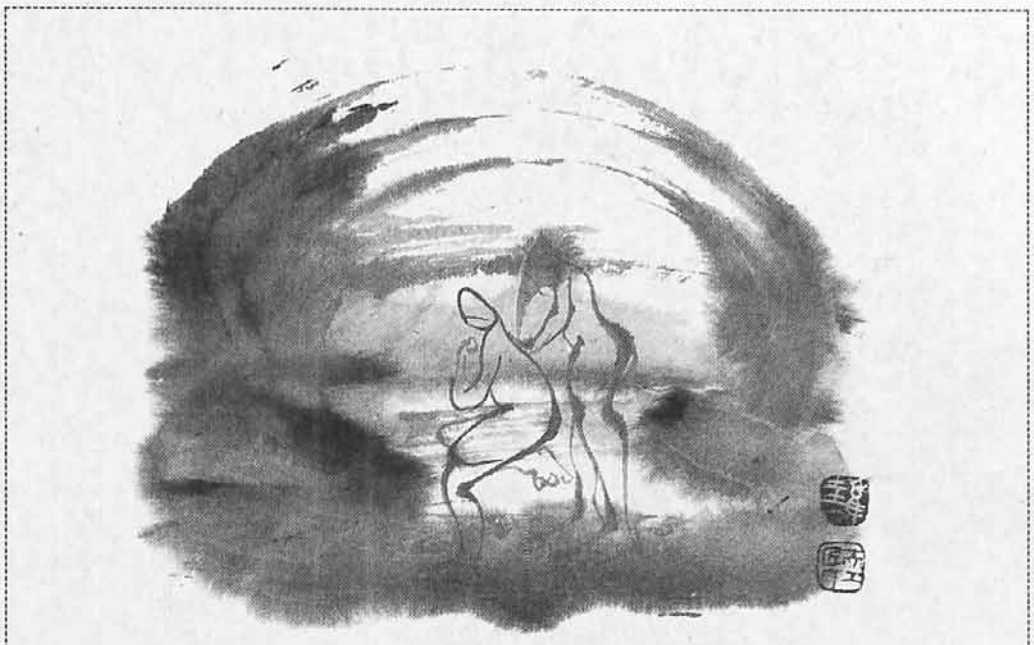


그림 · 최규일

그녀의 수행

무욕도에 돌아온 것은 반년만이었다.

한두달치 양식을 마련해 놓고 떠난 인담으로서는 이상하게도 양식 걱정 따위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테면 무념(無念) 가운데서 시간이 흘러 가버렸고 그 시간에 대한 의식이 인담의 마음 속에 일어나지 않았던 터였는지 모른다.

우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인담을 맞이하는 그녀의 환한 웃음은 활짝 피어서 더 이상이면 시들기 시작할 것 같은 그런 모란꽃의 절정과 같았다. 아니 그것은 모란꽃이 아니라면 연꽃이나 작약꽃이라 해도 좋았다.

그런 여자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양식은 어떻게 구했느냐, 땔 나무는 어떻게 해왔느냐 따위의 지나간 일을 시시콜콜하게 묻는 일이 전혀 쓸모가 없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은근히 당부한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여간 쉬운 노릇이 아니었다.

첫째 그녀에게는 인담이 상상할 수 없었던 기쁨이 그 환한 웃음 뒤에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이어지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슨 향기인가'라는 인담의 궁금증 조차도 분명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궁금증이 있게 되자 그만 그 향기는 코에 닿지 않고 있었다.

향기의 궁극은 향기가 없음인가. 아닐 터이다. 이런 인담의 생각은 우녀의 새로운 기쁨, 아니 인담이 오기 전에 이루어진 그 기쁨 앞에서 기름이 다 되어가는 접시의 불빛처럼 힘을 꺼뜨리고 있었다.

그동안 그는 충청도의 서쪽에 저 스스로 세워진 듯한 산세의 여기 저기를 정신을 놓은 채 해매었던 것이다. 한양성밖 봉승아 밥 구렁에 내버려진 채 살아난 이후 그에게는 정신으로부터 방임(放任)된 채 살아가는 일이 있게 되었다.

충청도의 느릿느릿한 사람들의 말투도 그것이 이 세상의 말투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말투로 들리는 환각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었다. 아니 그것은 현실에 대해서 반드시 환각이라고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현실이기도 하였다.

거울을 바라보다가 그 거울 속의 세계로 들어가서 거울 속에 반사되어 있는 또하나의 자기자신과 일치됨으로써 거울도 없어지고 거울을 바라보던 자기 자신이나 그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도 없어지는 그 이름 지울 수 없는 세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문득 인담은 한참나에 그동안 몇차례나 떠올랐던 수미산의 일부분이 임의(任意)로 떠올랐다.

그 찰라에 보여주는 수미산 정상의 그 검은 하늘에서 번쩍 번갯불과 같은 불빛이 비쳤을 때 인담은 그 아래의 철위산(鐵圍山)이 마치 커다란 성 안을 보호하는 성벽처럼 둥글게 솟아있는 삼엄한 광경을 볼 수 있었다. 그런 뒤 다시 인담의 눈에는 검은 하늘 뿐이었고 수미산 정상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타버리면 재가 되어 바람에 날릴 것을"

하고 우녀가 저물어가는 썰물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중얼거렸다. 그것은 인담의 부질없는 환각에 대한 유연한 충고이기도 하였다.

"타버리면 재가 되는것이 불법(佛法)이 말하는 우주(宇宙) 아니러뇨?"

퍼뜩 인담에게 제 정신이 돌아왔다.

그때서야 그가 떠난 사이 우녀는 엄혹한 수행을 혼자 갖추어 낸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동서남북 4방(四方)과 동남 동북 서남 서북의 4유(四維) 그리고 상하를 아울러 시방(十方)이라 하는 데 바로 이 시방세계에 수많은 정토(淨土)가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이 무욕도에 앉아서 동방의 아촉불이 주재하는 묘희(妙喜) 세계가 있는 것과 서방의 아미타불이 거기에 오기를 기다리는 극락(極樂)세계가 있는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녀의 마음으로는 묘희세계의 빛나는 햇빛에 실컷 목욕을 한 뒤 거룩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바뀌어진 그녀 자신으로 들아 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섬에서 한 발작도 물에 건너가지 않고도 바로 시방세계의 여기 저기를 다니며 배가 고픈 적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호흡이야말로 진리를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일이며 밥을 먹고 몸 안의 남은 것을 내보내는 일이었다.

이같은 일이 현실의 가장 깊은 부위(部位)에서 가능했다. 이제 오랜 선(禪) 수행을 해온 인담의 경지 보다 우녀가 수승(殊勝)한 것이 틀림없다.

"스님 오래동안 객지를 다니는 동안 몸이 개운치 않았지요?"하고 그녀가 오랜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처럼 스스럽없이 말하였다.

"물을 데웠습니다. 제가 목욕을 시켜 드리겠어요."

인담은 저으기 놀랐다. 그가 놀란 것은 앞을 가로막은 것처럼 대담한 목욕 권유를 처녀 우녀가 거리낌없이 한 것보다는 그녀가 벌써 남녀차별을 벗어난 경계에 들어가 있기때문이었다.

그는 두 손이 있되 두 손을 쓸 수 없었다.

입이 있되 무어라고 그녀의 권유에 대응할 수 없었다.

아니 그러기 전에 우녀는 인담의 옷을 마치 병든 자아비의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아내처럼 주저할 겨를 없이 벗기는 것이었다.

그동안 몇번인가 빨아서 입은 옷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풀을 먹인 적도 없거니와 다리미질을 한 적도 없는지라 그야말로 못맵시는 후줄그레한 떠돌이 막일꾼의 그것이었다.

비 맞은 가을 중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바로 그런 중의 꼬라지가 섬에 돌아온 인담의 형편이었던 것이다.

진작 방안에 들여놓은 큰 물통 가득히 제법 뜨거운 물이 차 있어서 거기서 나는 김이 방안을 희뿜하게 반투명으로 만들었다.

어떤 뜻에서는 아주 색정적인 환경이었다. 그 몽롱함과 그 비공개성 그리고 무엇보다 난숙한 정신과 몸을 함께 갖춘 아름다운 처녀와 금욕의 비구 사이의 새삼스러운 친밀감은 충분히 환희의 세계로 굴러가기에 알맞았다.

부파불교(部派佛敎) 중의 유력한 세력인 대중부(大衆部)에서는 현재다불설(現在多佛說)을 주장함으로써 시방삼세(十方三世)의 많은 부처님의 출현을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석가모니부처님의 사바세계와 같은 예토(穢土)에 대해서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된 낙토(樂土) 즉 정토가 있는 데 바로 이런 예토와 정토 따위의 대칭(對稱)까지 못마땅히 여긴 커다란 마음의 우주를 펼친 유마(維摩)는 "마음이 청정하면 바로 거기가 정토다"라고 부르짖었다. 우녀가 바로 그 같은 유마의 정신을 이어받아 바야흐로 때가 켜켜이 낀 인담을 목욕시킴으로써 그 때를 벗겨내면 그 청정한 몸이 바로 정토의 법체가 되지 않는 바 아님을 시현(示現)하는지 모른다. 그녀는 뜨거운 물이 실컷 김으로 피어오른 뒤 좀 온도를 낮춘 더운 물로 바뀌었을 때 그 물로 인담의 맨몸을 적셔 갔다.

때로는 물에 젖은 수건으로, 때로는 그녀의 맨손으로 인담의 몸을 더운 물에 적셨다. 물에 적셔진 곳이 이내 식으면 다시 그 곳을 더운 물로 적시기를 되풀이하였다.

이렇게 몸에 물을 적시는 동안 몸의 살갗은 물에 불어났다.

"이제 때를 한꺼풀만 벗겨드리겠어요"

그때에야 인담이 말하였다.

"내가 벗겨도 되는 데…"

그때 우녀가 낭자답지 않은 넉넉함으로 다른 말을 던졌다.

"그래… 스님! 제 몸값은 언제 갚을 작정이십니까? 제물포 뱃사공한테서 저를 외상으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저를 그 사공한테 돌려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무엇이라고?"

라고 인담이 감았던 눈을 생으로 떴다. 그가 말을 이었다.

"안될 말이지. …그 처사가 우행자(雨行者 — 雨女)를 나에게 맡긴 것은 나더러 잘 보살피라는 뜻이었지요. 그 몸값이 마음에 걸립니까?"

어느덧 인담도 우녀에게 반말쓰기를 그만 두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인담의 맨몸을 손으로 정성스럽게 문질러 때를 벗겼다.

그러자니 그 손도 뜨겁거니와 인담의 몸도 구들장 아랫목처럼 뜨거워졌다.

실로 오랫만에 깊이 잠들어 있는 정욕이 일어났다. 하지만 인담은 굳이 그 정욕을 숨기지 않았다. 아니 그 소년의 뻥 뚫린 목적인 정욕과 방불한 인담의 그것이야말로 그가 살아 있는 육신임을 실측케 하는 일이었다.

우녀는 그런 인담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므로 인담의 몸을 문지르는 우녀는 우녀의 허상이고 정작 우녀의 진면목(眞面目)은 인담의 마음 속에 들어가 인담의 몸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인담의 억누를 수 없는 정욕도 우녀의 마음이어야 하였다.

"자아 이제 이만하면 청정법신(淸淨法身)입니다. 스님"

하고 그녀의 두 손이 지극히 오묘한 손놀림으로 인담의 때를 문질러낸 뒤 인담에게서 떼어졌다. 인담의 몸은 벌판에 내던져진 느낌의 허망과 절망으로 메워지는 것 같았으나 곧 그 목욕 뒤의 의식 불명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그의 정욕도 화로의 불에 고드름 한 토막이 떨어져 녹아버리는 것처럼 스러졌다. 뱀에게는 꼬리였고 그의 정욕에는 꼬리조차 없이 스러진 허망인 것이다.

인담은 다시 대허공(大虛空)으로서의 우주 가운데 두둥실 떠있는 풍륜(風輪)을 보았다. 어찌 보건 데 원반(圓盤)같은 모양이기도 하였다.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를 그는 듣고 있었다. 아니 그 목소리는 우행자의 것인지도 몰랐다.

풍륜의 크기는 그 둘레의 길이가 얼마인가 라는 수(數)가 아니라 무수(無數 아삼키야)였다. 다만 두께가 자그만치 1백60만 유순(由旬)이다.

1유순이 약 20리(里)이므로 그 두께도 엄청나다. 그 풍륜을 보고난 뒤 인담은 현실로 돌아와 무욕도의 방안에 있었다. 그것도 목욕을 하고 난 뒤의 맨몸에 새 옷이 입혀져서 그의 몸 아래에는 요가 깔려있고 그의 몸 위에는 이불이 덮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몸 옆에는 우녀가 머리를 감은 뒤의 덜 마른 촉촉함으로 누워있었다.

불이 탁 꺼졌다. 접시 기름이 다 바닥난 것이었다.



수자령(水子靈)의 천도를 위하여 대원사에 봉안된 수자지장보살

水子靈 천도를 위한

100일 미타 기도 안내

수자지장보살(水子地藏菩薩)을 봉안하고 수자영가의 천도를 기원해 온 대원사에서는 수자영가의 천도 및 염불정진을 위한 100일 미타기도를 봉행합니다.

수자령(水子靈)이란 부모와 인연은 맺어졌지만 이 세상의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불쌍한 어린 영혼들을 말합니다.

수자영가의 천도를 봉행하는 목적은,

첫째, 씻을 수 없는 부모의 죄업을 참회하여 안정과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고
둘째, 전생과 금생의 나쁜 인연을 소멸시켜 삶의 고통과 장애로부터 벗어나며
셋째, 원결 맺힌 영가들을 해탈시켜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며
넷째, 불보살의 큰 서원에 의탁하여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 삶의 고통과 죄업에 몸부림치는 이웃들의 다정한 벗이 되어 보살의 삶을 실천하고자 합입니다.

수자지장 보살전에 부모의 죄업을 씻고 아미타불전에 수자영가의 왕생극락을 발원하고 봉행되는 100일 미타기도에 여러분들의 진지한 동참을 바랍니다.

기도에 동참하신 분에게는 ①낙태의 죄업과 구원을 설한 장수멸죄경 ②기도용 지장보살 사진 ③사경과 사불을 위한 반야심경과 지장보살 체본 ④백일기도를 위한 일일수행법과 영가축원문 ⑤불기 2539년도 동자달력을 우송해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1994년 11월 17일(입재)~1995년 2월 24일(회향)
▶ 동참회비 : 기도금(3만원) 영가 위패 1인당(5천원)
▶ 온라인 : 조흥은행 322-06-008780(석현장)
▶ 연락처 : ㉾ 546-840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
전화 (0694) 52-1755 팩스 (0694) 53-0009
▶ 백일기도 기간중 년말년시 일주일간(12.26~95.1.1) 봉행하는 새해맞이 반주삼매 염불정진에 참여하실 분은 연락주십시오.

지장보궁 염불선 도량 대원사
주지 釋 玄 滅 합장

생활 한자와 예쁜 글씨를 함께 배우는

每日漢文

매월 4,000원
일시불 값 10,000원
통신 주문제 실시

漢字를 모르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비결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 속에 漢字로 된 우리말이 70%
가정과 직장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지.
3개월 코스!

주요내용 : 명심보감 해설 / 고사성어 / 일반 상식 / 1일 1언(금언)

도서출판 한넋다비드
서울 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1-7 미도 B/D307
전화: 직통) 783-6113 , 253-6894~5
팩스: 785-1228 , 253-6895

"약사여래 손길"로 질병 쫓는다

불교병원 전국 확산 박차 … 친절한 서비스 통해 지역포교

이은자 기자

약사여래의 따뜻한 손길을 직접 체험할수 있는 곳. 의술을 통해 자비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불교병원이 아닐까.

현재 종합병원체제의 병실과 치료실을 갖춘 불교병원은 동국대학교부속병원인 서울 동국한방병원, 동국경주병원, 경주한방병원, 포항병원, 친천한방병원 등이 있다. 여기에 스님과 개인이 운영하는 한의원등을 포함하며 전국에 20여개의 불교 병원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국대 부속 서울, 경주, 인천 한방병원은 한방내과,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 한방물리요법등 다양한 진료과목과 전문의료진,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완벽한 진료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들 한방병원은 중풍, 비만, 금연, 수침, 불임클리닉등 전문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올 7월 개원한 동국인천한방병원은 동인천 길병원과 한 건물안에서 양·한방 동시진료를 종합병원수준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실시해 환자들이 양·한방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 보다 편리하게 진료받을수 있게 했다.

한방병원외에도 경주 동국대 병원, 포항병원이 내과, 외과, 정형의과를 비롯한 21개 진료과목과 종합건강진단센터, 인공신장실, 핵의학실등을 갖춘 전문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전력을 다해왔다. 또한 여기에 동국대 분당병원이 96년 개원을 목표를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 불교종합병원

병 원	진 료 과 목	전 화
동국대 서울 한방병원	한방내과, 침구과 외	(02) 599-3519
동국대 경주 한방병원	〃	(0561)749-6556
동국대 인천 한방병원	〃	(032) 764-9011
동국대 경주병원	종합병원	(0561)748-9300
동국대 포항병원	〃	(0562) 73-8111
자혜당 한의원	한방내과, 침구과 외	(02) 545-3144
불교한방병원	〃	(053) 741-0936
서울 광명의원	내과, 가정의학과 외	(02) 203-3677
청주 광명의원	〃	(0431)221-0836
대전 광명의원	〃	(042) 634-5820
군포 광명의원	〃	(0343) 54-5617

특히 이들 동국대 부속 병원들은 불자에게는 진료비의 10%를 스님들에게는 진료비의 20%를 할인해 준다고.

의료복지사업의 불모지인 불교계에서 선구자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의 광명의원도 빼놓을 수 없는 전문불교병원이다.

서울, 청주, 대전, 군포 등 4곳에서 65세이상 노인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있는 광명의원은 지난 11월부터 스님들에게까지 확대무료진료를 실시해 불교의료복지사업에 잔잔한 영향을 주었다.

이밖에도 서울 자혜당한의원, 대구 불교한방병원등도 불교병원으로서 진료활동을 해오고 있는 곳들이다.

의술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고 있는 불교병원은 한결 편안하고 친절한 의료서비스로 병원을 찾은 모든 환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질병은 의사의 힘만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와 간호인과 병자의 3자가 일체가 되어 서로 그 책임을 지키고 협조하는 데에서만 병은 비로소 고칠수 있는 것이다."라고 일찌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셨다.

의술은 생명을 다루는 인술이다.

깊은 신심을 바탕으로 의사와 환자, 그리고 간호인이 한마음이 되어 질병을 치료해 나가는 곳이 바로 불교병원이다.

친절하고 정성스러운 의료활동으로 불교포교에도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불교병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담당한 의료기관으로 자리메김해 나가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남은 불교병원의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인터뷰



동국대 서울한방병원
이 종 형 원장

"육체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며 불교병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국대 서울 한방병원 이종형원장.

한방내과계통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이원장은 지난 89년 개원때부터 한방병원의 원장직을 역임해 왔다.

"마음의 병까지도 치료"

이원장은 그 동안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변화되는 사회에서 질병의 양상로 달라지고 있다며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등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는 젊은 중풍환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설명했다.

"심리적갈등으로 일어나는 이 같은 질병은 단순히 수술로써 치유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고쳐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환자들은 대하다보면 가정적 고충까지도 의사에게 모두 토로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그때마다 '불교를 믿고 마음을 다스리라'고 조언해 주기도 한다고.

최근 인천 동국한방병원의 개원등에 대해 이원장은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범불교적 차원에서 더 좋은 시설의 더 많은 병원이 앞으로 계속 설립돼야 한다."면서 "기독교나 카톨릭등 타종교의 의료시설에 비하면 불교는 이제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라며 불교의료사업의 분발을 촉구했다.

새해 불자수첩 나와

견지불교사

견지불교사는 실용성을 살린 새로운 불교수첩을 제작했다.

예불문, 반야신경, 천수경등 기본적인 예경문과 교리상식, 불교 관련 각종 학교 단체기관의 연락처를 담아 불자들의 신행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02)739-3032

불심 모아 가족애 살찌워

삼천사 부부가족법회 자연보호등 활동다양



◇ 부부가족법회는 온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삼보의 법을 따르는 불자가족 되게 하소서."

지난 4일 서울 진관외동 삼천사(주지 성운스님) 법당은 부부가족법회 회원들의 간절한 발원으로 가득 찼다.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열리는 부부가족법회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불심을 통해 가족애를 살찌우는 시간이다.

지난 2월 창단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 삼천사 부부가족법회는 논산훈련소 장병수계식, 철야정진법회 등 다양한 신행활동을 해왔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60쌍의 부부 1백20명회원 전원이 한마음으로 '그린스카우트'에 가입, 환경보호를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참다운 신행단체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주변의 환경부터 깨끗이 보호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매회 법회가 끝나면 회원 모두가 산행을 하면서 건강도 다지고 계곡청소도 함께 했다.

"사찰신행단체중에서 그린스카우트에 가입한 곳은 저희 삼천사 부부가족법회 뿐일 겁니다."라며 자부심이 대단한 신장효 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활하는 참불자가정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불국정토 건설을 앞당기자는 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라면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한 생활불교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은〉

만 화

法句經 법구경

정진(不放逸)의 장

홍수로도 밀어낼수 없는 섬을 쌓는다

이 향 원



성도절 봉축 성지순례

- **순례기간**: 1995년 1월 4일 ~ 1월 18일(14박 15일)
- **동 참 금**: 178만원
- **일 정 표**

일 자	방 문 지	일 정
제1일	서울 / 봄베이	서울 출발 / 봄베이 도착
제2일	봄베이 / 바라나시	인도문, 웨일즈박물관 등 봄베이 관광후 바라나시로 이동
제3일	바라나시	갠지스강 일출 감상 후 초전법륜지인 사르나트 순례
제4일	바라나시 / 보드가야	부처님의 성도지인 보드가야로 이동, 금강보좌 순례
제5일	보드가야	성도절 봉축 법회 참석-보리수, 나련선하, 마하보디사원 순례
제6일	보드가야 / 라지기르 / 파트나	보드가야 출발, 영취산, 죽림정사, 나란다불교대학터 순례
제7일	파트나 / 바이살리 / 쿠시나가르	바이살리 방문후, 부처님의 열반지인 쿠시나가르의 열반당 순례
제8일	쿠시나가르 / 룸비니 / 발람푸르	네팔입국,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방문 후 인도 재입국
제9일	발람푸르 / 럭나우 / 델리	발람푸르 출발, 기원정사와 사위성 순례후 럭나우 경유 델리 도착
제10일	델리	룸타미나르, 인도문 랄 킬라등 델리 관광
제11일	델리 / 아그라	아그라로 이동, 아그라성, 인도 최고의 건축물인 타지마할 방문
제12일	아그라 / 산치 / 보팔	산치로 이동, 산치 대탑 방문 후 보팔 출발
제13일	부사발 / 엘로라 / 아잔타	부사발 도착 후 엘로라, 아잔타 석굴사원 방문
제14일	오랑가바드 / 봄베이	오랑가바드 출발 / 봄베이 도착 후 봄베이 시내 관광
제15일	봄베이	봄베이 출발 / 서울 도착 ＊성불하십시오＊

※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 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대표전화 (02) 544-1533

■ 여행조건
- 1급 호텔(성지지역은 현지 최고 수준) 2인 1실 기준
- 전일정 식사 제공(성지 지역은 한식 제공)
- 최소 출발인원 : 10명
- 전문가이드 동행
- 여행자 보험

불교에 대한 관성적 관념을 그 근저에서부터 부정하는 비판신서

연기와 공
-여래장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런 고민없이 불교의 기본적 교리라고 믿고 있던 관념들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는 책.
불교의 중심사상은 여래장사상인가, 연기설인가?
이 양자는 양립가능한 것인가?
양립불가능한 상반된 것인가?
상반된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왜 버려야 하는가.
이 책은 그 해답을 줄 것이다.

松本史朗 저, 혜원역, 신국판, 352쪽, 6,500원

대지관좌선법(마하지관) 1,2
김무득 주석, 각권 8,000원

능엄경연구입문
김진열 저, 15,000원

조선불교유신론
한용운 저, 5,000원

돈오요문
대주혜해 저, 혜원 역, 5,000원

미륵성전
이종익 저, 3,500원

백교회통
이능화 저, 4,5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 ☎(02)720-9372 Fax (02)723-0646

새롭게 움트는 '깨달음의 문학'

「세계명상시선」「속 벽암록」 禪동화집 등 곧 선보여

선시를 비롯한 선문학에 대한 관심이 기획출판과 창작, 선가문학연구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관심은 깨달음을 향한 정신적 체험의 문학화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본격문학이 저조했던 불교출판계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민족사는 세계명상시선(가제) 시리즈 16권을 기획, 내년 1월중 4권 출판을 시작으로, 내년에 나머지 권 모두를 완간한다는 계획이다. 신동춘 시인(한양대교수·영문학)과 작가 정찬주씨가 곧 작품집을 내거나 준비중에 있다.

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소장 홍일식 고려대총장)에서 최근 펴낸 〈한국근세 선가문학〉(서규태 지음)은 한국시문학에서 차지하는 불교적·선적 전통을 학술적으로 규명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민족사의 세계명상시선 시리즈는 한국 중국 일본의 선시를 비롯해 한국의 불교전통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기탄잘리 까비르 미라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미 기탄잘리 까비르 미라 크리슈나무티는 번역을 마친 상태. 김양식 시인(한·인도문화연구회장)이 번역한 인도문학의 정수 〈기탄잘리〉는 원어인 벵갈어판을 텍스트로 삼아 타고르의 문학적 향기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어 관심을 모은다. 기탄잘리는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작품으로 1913년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밖에도 우파니샤드 밀라레빠 등은 인도와 티벳 전통문화의 원형이라는 점에서 이들 나라의 세계관과 불교관을 문학적·종교사상적 관점에서 엿볼 수 있어 주목된다.

민족사 주간 일지스님은 "기존의 선시관련 불서가 어느 정도의 기초적 소양을 요구한다면, 세계명상시선 시리즈는 철저히 대중에 애송될 수 있는 작품과 문학적 향기를 지닌 것들을 묶는 특징을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춘 시인은 대표적인 선어록 〈벽암록〉의 선세계를 현대시의 창작원리에 기대어 현대인이 지향할 정신세계를 펼쳐보이는 〈속 벽암록〉을 창작중에 있다. 특히 무병이라는 삶의 한 고비를 넘기며 바라본 자아와 세계와의 합일을 그려내고 있어 이전의 작품세계와는 또다른 서정을 예고하고 있다.

나무는 끝없이 자라고
사람은 끝없이 찾아 헤맨다.
파도는 찰라마다 태어나기 위해서
끝없이 죽어간다.

-속 벽암록57-

위 시에서 보여주듯이 압축적인 4행시로 선적 깨달음을 향한 도정에서 빚어지는 부명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87번까지 마무리된 〈속 벽암록〉은 곧 100번까지 완성해 영어와 불어 그리스어로 동시 펴낼 예정이다.

정찬주씨는 선동화집 〈샘물과 바가지〉(전3권)를 '열린세상'을 통해 곧 펴낸다. 2,30대 젊은 직장인들이면 누구나 갖는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선세계의 프리즘을 통과한 동화의 방법으로 전해주고 있다.

아울러 서울정도6백년 마스코트를 도안한 강우현씨의 삽화를 곁들여 생활의 쉼표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근세 선가문학〉은 15-16세기에 활동했던 설잠 보우 휴정 등을 통해 작가와 현실인식, 문학사상, 시론을 고찰하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국문학 연구에서 소외되고 있던 선가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적 접근으로서, 풍부한 자료소개와 체계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출판기획과 창작·연구활동은 90년대 초반 한때 '현실 도피냐' '특별한 정신적 체험의 산물이냐'로 한국시단에 일었던 '정신주의시'에 대한 논란의 재림가와 함께 '새로운 그리고 올바른' 정신주의 문화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기대를 모은다.

〈정성운 기자〉



◇ 신동춘 시인

선문학에 대한 높은 관심이 다양한 출판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불서출판의 새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진은 민족사가 '세계명상시선' 시리즈로 펴낼 〈기탄잘리〉.



명사추천 물서100선

유 마 경

자기완성이 세상의 구원임을 시사



김 용 운 〈한양대교수·수학과〉

하는 과정에는 그 상대적인 세계도 긍정한다. 하지만 이런 모순들은 관점을 바꾸어보면 달라지게 된다.

일부의 중생을 제도(濟度)하면서도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기에 부처의 나라를 지상에 완성하려는 유마힐의 의지가 보인다.

〈유마경〉에서 필자가 가장 인상깊게 생각하는 대목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문수사리와의 대화이다. 그 속에는 병에 대한 문답이 있다.

'중생이 병들면 보살이 병들고, 중생이 나으면 보살도 낫는다.'

이때 중생이란, 또 보살이란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중생은 모든 인간을 지목하는 것이지만, 필자는 여기서 말하는 중생이란 '모든 인간의 집합적 무의식'이라고 해석한다. 즉 민중의 무의식이다.

보살은 중생의 무의식 속에 내재하는 선(善)의 의지이다. 사회, 크게는 인류의 집합적 무의식에는 항상 인류를 건전하게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다. 그것이 곧 보살의 뜻이다. 따라서 보살은 살생을 금하고 패륜적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이 병들어갈 때 선의 의지, 곧 보살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중생의 병이 치유되고 중생이 건전해지면 보살의 마음도 나아진다. 이 말과 현대 우리사회의 양상을 빗대어 생각할 수 있다.

중생속에 살고 있는 佛이 곧 보살

이 책을 읽으면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을 것이다. 몇번을 읽어도 그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부각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되돌아보게 한다.

우선 유마경은 재미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책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유마힐(維摩詰)과 정면 대결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그 본뜻을 이해할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높은 학력을 쌓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말문이 막히도록 유마힐에게 혼이난다.

독자들은 유마힐을 꺾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읽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유마힐의 말에 동감하고말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얼핏 유마힐이 말하는 내용은 모순처럼 보인다. 모두가 '공'이라 하면서도 현태의 장엄성, 좋은 내음을 찬미한다. 절대경지에 도달하는 과정에는 그 상대적인 세계도 긍정한다. 하지만 이런 모순들은 관점을 바꾸어보면 달라지게 된다.

일부의 중생을 제도(濟度)하면서도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기에 부처의 나라를 지상에 완성하려는 유마힐의 의지가 보인다.

〈유마경〉에서 필자가 가장 인상깊게 생각하는 대목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문수사리와의 대화이다. 그 속에는 병에 대한 문답이 있다.

'중생이 병들면 보살이 병들고, 중생이 나으면 보살도 낫는다.'

이때 중생이란, 또 보살이란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중생은 모든 인간을 지목하는 것이지만, 필자는 여기서 말하는 중생이란 '모든 인간의 집합적 무의식'이라고 해석한다. 즉 민중의 무의식이다.

보살은 중생의 무의식 속에 내재하는 선(善)의 의지이다. 사회, 크게는 인류의 집합적 무의식에는 항상 인류를 건전하게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다. 그것이 곧 보살의 뜻이다. 따라서 보살은 살생을 금하고 패륜적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이 병들어갈 때 선의 의지, 곧 보살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중생의 병이 치유되고 중생이 건전해지면 보살의 마음도 나아진다. 이 말과 현대 우리사회의 양상을 빗대어 생각할 수 있다.

화제의 책

예화 통해 즐겁게 사는 길 안내

깨닫는 밥그릇
〈강창민 엮음〉



'슬픔 또는 외로움'이 주조를 이루는 삶의 배경음악에 휩싸였던 엮은이(시인, 서강대교수·국문학)가 두 선지식의 가르침을 만나 '기쁨 또는 자유로움'으로 옮겨앉는 이야기를 담았다. '내가 종전에 배운 것들과는 얼개가 다른 새로운 것들'에 관한 기록이라고 엮은이는 밝힌다.

이 책은 '소리없는 문' '사랑하는 사람' '밥그릇' 등 여섯 큰 갈래 안에 57편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이야기들은 삶의 이런저런 국면에서 흔히 빚어지는 사소한 삐걱거림에 대한 풍부한 예화를 실마리로 하여 읽는 이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생각거리를 제공해준다. 이를 통해 즐거움 기쁨 베품 너그러움 희망 같은 감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큰 결론에 이른다. 석필출판사, 6천원.

기술문명의 폐해에 대한 답변

기술정보화시대의 인간문제
〈동양철학회 엮음〉



수명의 연장과 노동력의 감소, 안락한 환경의 조성, 지식의 대량 축적과 그 이용의 편리함 등이 기계·기술문명이 가져다준 유익함이다. 그러나 이런 유익함과 함께 기술 문명의 폐단·폐해의 극복 또한 우리시대에 주어진 주요한 과제이다.

인류의 공존 공영을 위협하는 위기의 초래와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한 윤리도덕의식의 황폐화, 개인 집단 국가 차원의 정보의 선점·독점에 의한 개인간의 갈등, 집단간 국가간의 불평등 등 문제 또한 심각한 상태를 조성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동양철학의 답변 및 대안을 '과학기술과 인간문제' '사회문제와 그 극복' '자연환경과 인간' 등 3부로 엮었다. 현암사, 5천8백원.

새로 나온 책

▲법구경 상·하(라즈니쉬 강의)=현대가 낳은 최고의 성자로 불리우는 오쇼 라즈니쉬의 법구경 강의. 법구경을 재해석하여 현대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역자는 이 책을 주석서나 해설서가 아니고 붓다의 이름을 빌린 또하나의 법구경이라고 밝힌다. 손민규 옮김, 태일출판사, 각권 6천5백원.

▲엑스 엑스(라즈니쉬 강의)=라즈니쉬의 여러 책들 속에서 가려뽑아 엮은 자전적 철학우화집. 이 책에 실린 153편의 우화를 통해 인간의 삶이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책임하며, 또한 얼마나 비지성적인가에 대한 통렬한 비판의식을 전해준다. 한민사, 박상준 옮김, 6천원.

▲여보게, 무엇을 그렇게 고뇌하는가(홍명 지음)=지리산에 은거하며 수행과 집필에 전념하고 있는 저자의 에세이집. 불교와 도교의 이치, 세간 철학원리와 문학세계를 다룬 이 책을 통해 홍명스님은 세상을 보는 지혜를 전해주는 한편 진실한 삶을 위한 자기반성의 노력을 촉구한다. 관음출판사, 6천원.

▲자린고비 약먹이기(신현득 엮음)=팔만대장경 속에 있는 「백유경」을 어린이들에게 알맞도록 고쳐쓰고 작품마다 짧은 해설을 곁들인 동화모음집. 「맛을 내는 소금」「약에 쓰는 말뚱」 등 백유경에 실린 98편의 비유를 통해 익살과 지혜로써 사람의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초롱출판사, 4천원.



▲마음을 비우게 자네가 부처야(홍봉 지음)=큰스님이 되라던 속가 아버지의 당부를 돼새기며 쓴 지은이의 자전에세이. 출가 전 속세와의 인연과 행자생활을 하며 보고 느낀 점, 이후 큰 스님들과의 문답과 일화, 재가불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담담한 필체로 서술하고 있다. 고려원미디어, 5천5백원.

▲선의 세계(시라도리 하루히꼬 지음)=만화로 엮은 선입문서. 「달마대사와 육조 혜능」「영서선사와 도원선사」「선입문」「화두」「선예술」 등 5장으로 구성돼 있다. 원작이 일본작가의 것인 탓에 일본선의 특징인 정제되고 정돈된 느낌을 전해준다. 김진무 옮김, 우리출판사, 4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분류
1	무소유	법정	범우사	문학
2	불교사100장면	혜봉	가람기획	불교사
3	새불교 원초불교	아잔차 외	고요한소리	수행
4	나가르주나	갈루빠하나	장경각	경전
5	자네, 도가 뭔지 아나	효림	대원정사	문학
6	합	생활선모임	한마당	선
7	한국차생활총서	강승희	서울출판	교양
8	무문관	무문혜개	경서원	선
9	천수경	무비품이	불일	경전
10	이야기 한국불교사	김현준	효림	불교사

구입문의:(02)737-0695

이유없이 아프거나 되는일이 없거든 수맥을 막아라!!

현대인의 질병, 그 큰원인이 수맥(水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수맥은 과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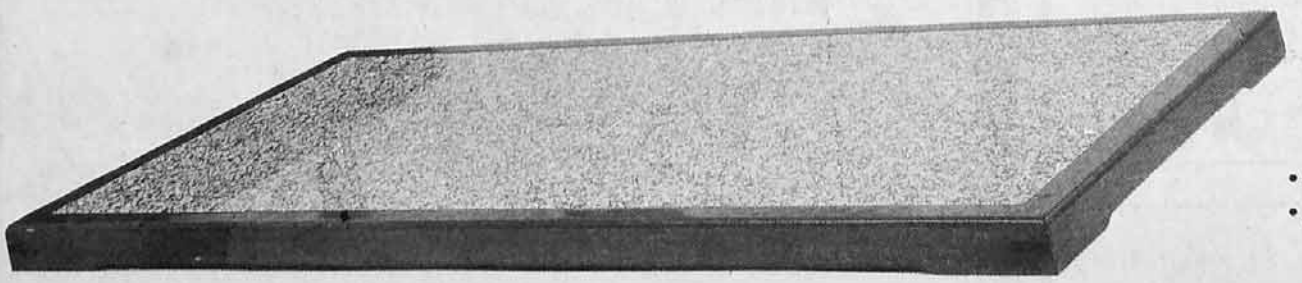
수맥의 기(氣)는 인체의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현대인은 이 수맥과 콘크리트벽,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체와 독소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적외선 온돌침대(파워스톤)은 이러한 수맥을 방지하고 실내의 유해한 공기를 정화하여 편안한 숙면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돌찜질기 입니다.

임상실험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전대학교·원광대학교 양 부속 한방병원의 임상실험 결과가 효과를 입증합니다.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이삭 파워스톤은 원적외선을 이용한 찜질효과로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의 활성화
■통증의 경감작용과 조직의 재생작용으로
신경통·류머티스·관절염·디스크·고혈압·당뇨병·중풍·냉·대하증·산후조리·불면증·교통사고후유증 등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피로회복·비만·미용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문의하시는 분께 임상실험자료와 수맥관련 책자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규격〉: • 200×104×8
• 200×138×80

• 실용신안특허 : 제068614호
• 상표등록 : 제245216호
판매원 민영실업
(02)208-7974~5
부산 (051)412-9351

인류의 건강을 추구하는
이삭産業株式會社
※전기용품 Q마크획득·전자파 장해 시험필
품질보증
EMI 공업진흥청

불심시심 〈7〉

시냇물이 경을 외운다

白雲堆裡屋三間 흰 구름 첩첩한 속 오두막 세칸
(백운퇴리옥삼간)
坐臥經行得自閑 앉고 눕고 나다니면 그래도 한가로와
(좌와경행득자한)
澗水冷冷談般若 촐랑촐랑 시냇물 반야경을 외우고
(간수랭랭담반야)
淸風和月遍身寒 달빛에 섞인 맑은 바람 온 몸이 싸늘하다
(청풍화월편신한)

이 시는 고려의 말미를 휘갑한 왕사였던 혜근(慧勤·호는 懶翁 1320-1376)이 지은 '산에서 산다(山居)'란 시이다. 제목이 그러하듯이 세칸 암자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경관을 답답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답답함이 오히려 선적 고요함을 깊이 드러내고 있다.

조그마한 암자를 중심으로 흰 구름이 싸여 있다. 속세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거처의 표현을 신선이 사는 집으로 연상된다. 세칸이라는 좁은 공간이지만 흰 구름으로 해서 속세와의 먼 단절을 의미하게 한다.

여기서의 앉고 누움이나 생각 없이 드나드는 발걸음에서 한가로움을 절로 이해하게 되지만 이것이 바로 선수행의 한 과정이다. 가고 머물고 앉고 누움(行住坐臥)이 어느 하나 선 아님이 없다해서가 아니라, 이 시가 갖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로 선의 정적등지이기 때문이다. 시어로 표현하려니까 한 가하다 한것이지 이 한가함은 바로 선의 고요함이다. 그러기에 주변의 어느 것 하나 진리의 여여한 드러남이 아님이 없다.

흰 구름, 시냇 물, 맑은 바람, 밝은 달은 다 각기 서로의 자성이 다르면서 처해 있는 공간 또한 다르지만, 졸졸 시원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반야의 진리의 법음으로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진여의 실상으로 모여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냇물을 중심으로 하여 모여든 위 아래 좌우의 모든 자연은 시냇물이 설법의 주인공이 되어 법음을 경청하는 사부대중의 한 무리가 된 셈이다. 따라서 이 시를 지은 선사도 이 대중의 무리와 함께 어울려 자연 진여의 법음을 듣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끝 귀에서 맑은 바람과 달이 어울려 온 몸을 에워 싸늘하다 하였다.

이렇듯 이 시는 서경의 자연시조로 손색이 없으면서, 역시 선사의 시각에서 읊어진 시이기에 자연의 진실을 선의 경지로 담은 선취도 짙다 하겠다.

이 종 찬 〈동국대교수〉



◇ 김영만씨의 「나도 독어지만 즉보가 있다」

화집출판 기념전
김영만씨 광주서

광주에서 활약중인 김영만씨가 목판화 출판기념전을 갖는다.

지난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의 일정으로 광주시 동명동 갤러리 아그배(062-228-4210)에서 열리는 김씨의 목판화 전시회에는 「心」「나도 독어지만 즉보가 있다」 등 그의 목판화들이 선보이고 있다. 김씨는 그간 창작해 온 목판화와 글들을 묶어 화집을 펴내고 그 기념으로 전시회를 열었다. 그의 판화집을 두고 곡성 태안사 조실 청화스님은 "작품마다 간절한 성불의 향수가 짙게 스며있다"고 격찬했다. 김씨는 「한국전통목판화 연구」로 조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지금까지 두차례의 개인전을 가졌다.

이번 전시는 광주불교방송과 정토불교 신문사가 후원했다.

김남희씨 한국화전
불교이상세계 그려

한국화가 김남희씨가 지난 5일 대백프라자갤러리(053-420-8015)에서 두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이번 개인전에는 불교적 이상향의 세계를 그린 한국화 30여점이 전시됐다.

그의 작품에는 나상의 여인들이 코끼리, 사슴, 호랑이, 등과 어우러져 있고, 회면 중앙 또는 한켠에 부처님이 자리하기도 한다. 또 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청과 목조각 벽화 등에서 고유색상과 문양들을 찾아 재구성, 불교미술의 현대적 해석을 시도 한 것이 김씨의 독특한 화법이다.

김남희씨는 계명대를 졸업하고 묵소회 계명한국화회 대구 청년작가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만암스님 일대기 영화 나온다

시네아트 「마지막 입는옷···」 설봉·설산·일봉스님 주연급 출연

만암스님(曼庵 1876~1957)의 생애가 영화로 만들어 진다.

시네아트(대표·최경옥)가 제작할 이 영화는 윤청광씨의 원작을 영화예술인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황하봉감독이 직접 각색하고 메가폰을 잡아 제작한다.

제목은 원작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 '마지막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네'이다. 분량은 90~120분이며 지난달 8일부터 촬영에 들어갔다. 만암스님의 어린시절에서 입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을 이 영화에는 알려진 배우 보다는 스님들이 직접 주인공으로 참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인공 만암스님의 역은 설봉스님(무애원 주지)이 맡게 된다. 또 극단 「춘」의 대표 일봉스님은 백학산 노스님역을, 백련사 설산스님은 감무화상의 역을 각각 맡는다. 현재 수행중인 스님이 주연급 배우로 캐스팅되어 영화를 만드는 것은 '청송 가는 길'에 이어 두번째다. 그러나 '청송···'에 비해 스님이 차지하는 역할비중이 이 영화의 전편을 장식하는 실화중심의 영화여서 이례적인 일로 주목된다.

주연급 세스님 외에도 강원의 학승이나 선방의 수좌들도 대거 동참 불교영화의 맛을 살릴 것이란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만암스님의 역은 아역 청년 성년에서 입적기까지등 세명의 배우가 연이어 맡게된다.

영화 「마지막 입는···」은 만암스님의 탄생과 입산배경 수도과정 일제에의 항거 이야기 조계종 정화불사의 지도등 격변의 삶을 스님의 행장에 기초해 사실적으로 묘사하게 된다. 특히 내년이 해방 50주년을 맞는 해인만큼 항일 부분에도 역점을 두어 식민지에서의 꼿꼿한 수행자상을 부각시킨다는 것이 황하봉 감독의 얘기다.

"우연히 불교방송에서 나오는 고승열전을 들었습니다. 만암스님의 일생에 관심을 갖고 나니 영화감독으로서 그분의 생애를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감같은 것을 느꼈지요" 황감독은 막상 마음을 내어 일을 시작하니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 '정말 만들고 싶던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는 자료화면을 중점적으로 촬영하면서 각 역을 맡을 배우들 캐스팅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새해부터는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 빠르면 내년 초파일 무렵에 늦어도 광복절 무렵에는 개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감독은 "모든 배우의 캐스팅 기본 조건은 불자여야 한다"며 스님과 불자들이 만드는 진정한 불교영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흰양을 백발 노인으로부터 받는 어머니(김부인)의 태몽에서 시작되는 「마지막 입는···」은 장면의 번화를 아나운서멘트 형식으로 이끌고 가급적이면 선·교의 치우치지 않는 수행기풍을 보여주려는데 제작의 핵을 두고 있다. 이를통해 꼿꼿한 한 수행자의 모범적인 삶을 조명해 냄으로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싶다는 것이 제작진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다. 영화의 마지막은 만암스님이 입적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자필묵과 옷가지 그림등을 골고루 나눠주고 홀연히 입적하는 장면인데 스님의 유언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이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입는 옷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 사랑도 돈도 땅도 명예도 감투도 담을 수가 없는게야"

〈임연태 기자〉



◇ 만암스님 영정



◇ 황학봉 감독

입산·항일행적·선교융합적 수행기풍 담아

불교문화재 50점 보수된다

95년 정암사 수마노탑등 ··· 통도사 유물전시관 건립

내년도 문화재관리국 예산중 국보·보물급문화재 수리보존에 쓰여질 총액은 4백77억5천7백1십6만9천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액수는 50여 문화재의 수리·보존을 위해 사용된다.

문화재관리국이 내년에 예산을 집행 수리·보존책을 마련할 해당 국보·보물급 문화재 및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청룡사 대웅전: 봉향각 해체보수, 3천만원 △회암사지: 부도보수, 3백5십만원 △정암사 수마노 탑: 해체보수 1억원

△정지국사 부도 및 비: 배수로 설치, 석축보수, 진입로 정비, 2천1백만원 △강화 화정면 석조여래입상: 보호각보수, 돌담보수, 7백2십만원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진입로 정비, 3천만원 △계산리 5층석탑: 토지매입, 진입로 개설, 1천2백7십5만원 △봉선 홍경사 비각: 보호각, 보호책 보수, 1천5백8십3만원 △발산리 5층석탑: 탑보수 및 주변석재 정비, 1천3백만원 △무위사 극락전: 화장실 보수 석축 설치, 배수로 정비, 1천8백만원 △미황사 응진당: 석축보수, 기단보수, 1천8백6십만원 △도감사 헤탈문: 문보수, 7백만원 △군위삼존석불: 계단보수, 5천만원 △개목사 원통전: 원통전 및 루문보수, 4천8백만원 △불영사 응진전: 영화실 보수, 4천만원

△영천 선원동 철불좌상: 관리사 보수, 2천7백만원 △나원리 5층석탑: 석탑보수, 2천만원 △지보사 삼층석탑: 위령실 해체보수, 3천5백만원 △감은사지 삼층석탑: 동탑보수, 4천9백만원 △영풍비로자석 아미타 및 석비로자나불좌상: 보호각 보수, 7천만원 △광덕리 석조보살입상: 진입로 토지매입, 7백5십만원 △용문사 대장전: 회전문 보수, 천5백만원

△도리사 석탑: 극락전 보수, 5천만원 △창년탑 금탑치성문기비: 토지매입, 4천2백만원 △신흥사 대광전: 대광전 보수, 4천만원 △해인사 대장경판: 소화시설, 6천만원 △봉선사 대종: 요사채보수, 4천만원 △수덕사 대웅전: 주변정비, 5천만원

△통도사 영산전 팔상도: 유물전시관 건립, 20억 △춘천 7층석탑: 토지매입, 2억7천만원 △청평사 회전문: 지붕번와 및 주두 보수, 1천4백만원 △당진 신암사 금동불좌상: 보호각 개축, 3천만원 △금산사 미륵전: 담장설치, 5천만원 △청주 용화사 석불장군: 기단설치, 미장공사, 단청공사, 1억5천만원 △월출산 마애여래 좌상: 용암사지 정비, 1억5천만원 등.

불교문화재 특집다뤄
계간 「다보」 겨울호 발간

대한불교진흥원이 발간하는 계간 다보 겨울호(통권12호)가 나왔다.

논단에는 '불교영상매체가 나아갈 길'을 기획특집에는 '지방 불교 문화재의 현황과 보존대책'을 실었다. 또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를 지상중계하고 있다.

특히 권말부록으로 서울 및 근교 사찰지 제3권 삼각산의 사찰이 실려 있어 주목된다.

주부 창작교실 개설
불교문학포교원

불교문학포교원에 주부 문학 창작교실이 개설됐다.

불교문학 감상과 이론및 실기를 배우는 이 창작교실은 매월 세째주 금요일 오후1시에 불교문화포교원 법당에서 열린다. 매월 작가를 초빙해 강좌를 마련한다.〈문의=308-9520〉

인터뷰

만암역 맡은 설봉스님



"승려이기 이전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출때 바른 승려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암스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죠."

만암스님의 일대기를 그리게 될 영화〈마지막 입은 옷에는 주머니가 없네〉에 도예가 설봉스님이 영화배우로 데뷔한다.

제작사의 출연제의에 거부의사를 밝혀오던 설봉스님이 만암스님역을 승락한 것은 영화도 포교이기 때문.

스님은 교도소·고아원·군부대 등지를 돌며 이웃의 불우한 이들을 돌보며 포교사로서 일관된 수행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이제 영상을 통한 포교의 길에 나섰다.

"법력 심도있게 전하는 연기 할 터"

"불교에서는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깨우쳐서 부처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머슴이 되어 하화중생하고자 할 뿐입니다. 그런 나에게 영화〈마지막 입은···〉은 대단한 충격이었고 격려였습니다."

대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설봉스님은 만암스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다.

스님은 선구자적, 개척자적 인생을 살다가신 만암스님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면서 만암스님이 남기고 가신 메세지를 영상을 통해 모든 불자들에게 전달하고자 발원했다.

"내면연기를 통해 큰스님의 정신적 고충과 법력을 심도있게 전할까 합니다. 영화를 보러 오는 관람객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도록, 스크린이지만 마음과 마음이 서로 어우러지는 연기를 할 겁니다."

학교 다닐때 연극을 하며 영화에도 관심이 남 달랐던 스님은 지금도 무애원 아이들에 연기를 지도하고 있다.

스님은 법을 전달의 일이라면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영화에 출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생은 연극입니다. 세상 전체가 아무리 넓다하여도 우린 삶의 언저리에 머물 뿐입니다."

〈선〉

"선시, 미국시단에 큰 영향 줘"

권의무교수 「스나이더의 시세계···」 분석



◇권의무교수

영문학교수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미국 선시(禪詩)의 거장인 게리 스나이더(Gary Snyder;1930-)의 선시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계명대 권의무교수는 지난달 26일 숭실대서 열린 '한국문학과 종교학회'(회장 김영호) 학술논문 발표회서 「게리 스나이더의 시세계와 선불교」를 발표해 국내에서는 생소한 미국 선시의 동향을 소개했다.

"1897년 스즈끼(鈴木大拙;1870-1966)에 의해 미국에 전해진 선불교는 점차 각광을 받기 시작해 오늘날에는 이미 구미 정신문화의 중심으로 파고들어 그 심층권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현대 미국 시단에는 선시(Zen Poetry)가 그 내용과 형식면에 있어서 다양하게 양산되어 강력한 정신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권교수의 설명이다.

권교수는 발표를 통해 스나이더는 7년간에 걸쳐 일본 교토의 선원에서 선사의 지도하에 엄격한 수업을 닦았으며, 좌선과 명상이라는 선의 실재를 통한 동양정신을 시의 모체로 삼았다고 밝혔다.

스나이더는 인생을 시공간을 통하는 긴 방랑여행으로 생각했으며, 사를 탐험가의 여행에 참여하는 진보적인 소리로 보았다.

미국의 대표적인 환경·생태계 보호론자이며 시인인 스나이더는 지난 58년 처녀시집 (Riprap)을 출판한 이후 줄곧 인류가 처한 환경오염과 생존의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오기도 했다.

권교수는 "스나이더의 시는 한국이나 중국의 대표적 선시들이 보여주는 기상천외한 강렬한 충격이나 독특함을 충분히 보여주진 않지만, 선적 아취(雅趣)를 보여주는 다양한 선취시(禪趣詩)와 선리시(禪理詩)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살아있는 호신경전—모시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공덕이옵니다!!

秘經 천불 금강경

경판테두리에 단을 쌓아 천불을 모셨습니다.



봉축 탄생

영험있는
만다라의 신비함과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들어 있는 비경

천불은 현세·현겁에 차례로 출현하는 구류손불·구나함모니불·가섭불·서가모니불·미륵불을 위시하여 최후 루지불까지의 천불을 말하며 천불금강경은 경판테두리에 단을 쌓아 부처님을 모시고 가운데 금강경을 입체사경하여 만다라의 영험과 신비함을 갖추고 있어 이시대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며 가정에 모시면 부처님의 가피원력으로 소원을 이루십니다.

• 봉축특가 W480,000
(현금 일시불, 은행신용카드분할가능)

포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영험높은 병풍——— 계문대사의 16존자 수행상 탱화

16나한도 10폭 연결 공단 병풍

큰 깨달음로 부처님의 음성을 직접듣고 정법을 수호하도록 위촉받은 16나한님들의 각기 다른 독특한 수행모습을 나타낸 중국 최고의 화사 계문대사의 탱화를 공단에금화로 옮겨 10폭 병풍으로 조성하여 수행하는 모든 불자님들에게 나한님의 영험을 전하고자 합니다.



■ 작품해설
• 전 면 : 16나한 수행도(금화)
• 후 면 : 500나한본기(금서)
■ 작품규격 : 높이 5.5尺 폭 15尺
■ 표구재질 : 앞뒤 고급공단 金子書·畫 스기원목(수입재)

부처님 품안 우리의 미래

한국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三田佛事포교원
■ 문의처 : 732-6096, 735-5293

■ 봉축특가 : W420,000
■ 분할가격 : W460,000
인수시 W100,000 매월 W120,000×3회

불교TV 전국서 시청가능

최근 국제위성 사용계약 마쳐

전국 어디에서나 불교텔리비전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깊은 산중 사찰은 케이블 설치가 불가능해 유선방송인 불교텔리비전의 시청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러나 불교텔리비전(대표이사·태응)은 최근 국제위성기구위성을 이용 '96년부터 무궁화위성을 사용할 계획인 한국통신과 계약을 체결, 위성안테나를 설치하면 깊은 산중사찰도 시청가능케 할 계획이다.

종합유선방송측은 프로그램이 종합유선방송국을 거쳐 각 가정까지 분배하는 과정에 위성과 케이블을 이용하는 두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분배망은 한국통신이 11개 공급자용을 건설하고 있으며 한국전력이 10개를 맡고 있다.

한국통신은 위성으로 연결, 한국전력은 케이블로 연결한다. 불교텔리비전은 불교인구의 주거환경을 고려해 한국통신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시청자들을 전폭적으로 수용, 영상포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한 관계자는 "위성안테나 설치로 폭넓은 시청자 확보가 가능해져 불교문화보급 영역이 크게 넓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94 방송 보도상 수상
BBS 이영일부장

불교방송 이영일부장(보도국)이 지난 8일 '94 방송보도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에서 라디오 보도제작상을 수상했다. 수상프로그램은 이영일부장이 지난 10월 총지휘 방송보도한 「법고와 죽비」의 '한국불교의 현실과 미래' 좌담프로.

BBS백팔가요 공개 방송
동두천시에 천만원 성금

불교방송 '백팔가요' 공개방송 「동두천 시민과 함께」가 지난 3일 소년소녀가장돕기의 일환으로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열렸다.

김홍국씨의 사회로 공개녹음된 이날 행사는 3천여명의 동두천 시민이 대성황을 이뤘다.

동두천 해범전우회는 이번 행사에서 모금된 1천만원의 성금을 시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불교방송 들기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으로 밝혔다. 공개녹음된 이날 백팔가요는 지난 11일 방송됐다.

BBS「차 한잔의 선율」
정목스님 다시 진행



◇ 정목스님

정목스님이 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에 지난 1일부터 1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방송을 시작했다.

지난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 방송을 중단했던 정목스님은 방송포교를 위해 다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클래식 소품위주의 음악과 정목스님의 정감어린 멘트가 '차 한잔의 선율'을 잔잔하고 편안하게 불교방송 애청자들을 이끈다.

불자들 훈훈한 세밑만들기 앞장

각종단 신행단체, 불우시설 자비손길 펴기 활발



◇ 지난 3일 이웃돕기운동 추진협의회가 명동에서 개최한 성금모금운동에 참가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어린이에게 사랑의 열매를 달아주고 있다.

연말을 맞아 이웃과 함께 훈훈한 세밑 만들기 움직임이 활발하다. 각 종단은 물론 사암, 신행단체들이 이미 불우이웃돕기에 나섰는가 하면 군부대, 교도소, 양로원등의 시설을 방문 위문공연을 펼칠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3일 명동 조흥은행앞에서 열린 이웃돕기운동 추진협의회가 주최한 이웃돕기 성금모금운동에 참여하고 성금을 기탁했다.

태고종은 지난 1일부터 95년 1월 31일까지 두달동안을 '연말연시 이웃돕기 및 청소년 선도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각 교구 종무원을 중심으로 불우이웃돕기와 청소년선도를 위한 법회 및 계몽활동을 편다.

천태종도 오는 18일 각 지역 사암별로 불우이웃을 초청 장학금 전달과 경로잔치를 베풀고 인근 군부대와 경찰서도 위문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음종 진각종 보문종등 20여개 종단이 양로원, 교아원, 재활원등 불우시설과 해당지역 불우이웃을 방문 현금, 쌀, 의류등 생필품을 제공하고 각종 위문잔치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조계종은 종단차원의 이웃돕기관련 행사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산하 사암과 신행단체들은 자비의 손길펴기 움직임을 전국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불교단체나 신행단체들도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본부는 지난달 28일 부산행사에 이어 오는 26일에도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기쁨을'이란 주제의 음악회를 호암아트홀에서 개최한다.

불교방송은 동짓날을 맞아 오는 22일 서울 경기지역 주요 사찰에서 이웃돕기 모금방송을 전개한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도 생활이 어려운 선원 신도들에게 쌀등 생필품을 전달하는등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부산지원도 지난달 25일 부산지역 소년소녀가장 1백세대에 성금 2천5백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제주지부와 도내 관음사부설 관세음합창단도 지난달 13일 정신요양원과 양로원등을 방문 위문공연을 가졌다.

대한불교교화연합회는 18일 신망애 복지타운을 방문 이곳 고아원 양로원에 쌀, 연탄등 생필품을 제공하고 서대문구지역 불우청소년에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

불자가수회도 같은날 도곡동 선림원에서 시각장애자 1백여명을 초청, 위문공연을 갖고 의류등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산불교산악회등 많은 신행단체들이 불우한 이웃과 연말을 함께 할 계획이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세밑을 훈훈하게 해 줄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월주스님 취임사 (요지)

"도덕성 회복·새 문명시대 선도"

불교가 가지는 생명력은 인간과 세계를 함께 구제하는데 있습니다. 존재에서 생겨난 모든 문제는 생명있는 것들에 대한 무한한 동체대비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족간·종교간·지역간·계층간의 이기주의를 극복할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불교 정신의 회복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복고주의적인 경향이나 인간만을 위한 문명 이기를 발전시키는 것이 곧 진보인 것으로 생각하는 풍토 등도 불교의 몰이해에서 비롯되어진 것들입니다. 분명 나 자신은 물론 범인간적·범세계적인 규모에서의 공존·공생·공익의 원리는 불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의 다변화 사회 속에서는 경제 질서를 중심으로 사회·문화등 여러면에 걸쳐 이분법적 논리가 더욱 심화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인구 증가와 식량·자원의 수급문제, 환경파괴에서 비롯된 지구 온난화 문제 등 인간이 일구어낸 또 다른 역기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크고 작은 원력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결연한 자세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하여 모든 불자들에게 계율을 청정히 호지할 것과 수행을 건전하게 진작시키며 교단의 위계질서를 엄정하게 가질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인은 앞으로 종단의 여러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교계 내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가 균림하는 것으로부터 대중에게 회향한다는 자세로 종무에 임하겠습니다. 개혁정신을 종무에 반영하고, 승가 교육제도의 대폭적인 개선과 재가 불자들의 질적 향상과 조직 확대, 청소년 활동 지원 등 교육과 포교에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교량자와 화해자 그리고 중간자로서 종단 내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급기야는 자율과 자정 능력을 갖춘 승단으로 성숙시켜 나가겠습니다. 개혁과정에서 징계받은 스님들 가운데 개전의 정이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승가 대화합의 차원에서 대폭적인 사면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적 지립을 이루기 위해 종단 차원의 중장기 사업을 여러 대덕스님들과 협의하에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며 사회 정의 구현, 복지봉사 부문에 깊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하여 통일의 여명을 밝히는 불교로, 민족의 역사를 계도하는 향도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교육·복지·포교분야 대폭늘려

태고종 내년예산 20억 확정

태고종(총무원장 박서봉)의 내년도 종단예산이 20억 1천14만1천원으로 책정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 69회 정기중앙종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금년 18억 9천4백95만1천원보다 1억1천5백19만원이 늘어난 20억1천14만 1천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가운데 총무원예산은 11억 3천1만 1천원으로 금년보다 약 2.28%증액편성됐으며 월간불교와 한국불교신문 그리고 기타 불교관계 단행본 제작등 언론 포교를 위한 예산은 금년보다 2천2백만원이 증액된 5억4천백만 5천원이 책정됐다.

또한 태고종립불교대학인 동방불교대학 예산은 금년보다 6천7백94만원이 증액 편성된 3억7천6백12만5천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종회에서 책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동방불교대학의 예산을 금년보다22% 증액편성하는 등 교육사업과 사회복지사업비, 포교활동비를 대폭 증액편성했다.

혜운 대종사 공덕비 제막
신촌 봉원사서

한국불교 법패중흥조인 월하 혜운대종사의 공덕비 제막식이 지난달 25일 오후 2시 신촌봉원사에서 봉행됐다.

송암, 일응, 만봉 스님을 비롯 봉원사 주지 혜경스님과 영산재 보존회 이수자 및 전수자, 봉원사 신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제막식에서 주지 혜경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혜운스님이 많은 후학들을 양성한 인연으로 영산재가 문화재로 지정되고 법음대학까지 설립하게 되었다."고 공덕비 설립배경을 설명했다.

선암사 선각당 상량식

태고총림선암사는 지난달 27일 선각당 상량법요식을 거행했다. 도선국사의 호을 따라 이름지은 선각당은 내년 2월 완공 예정이다. 한편 선암사는 선각당 신축을 비롯하여 지난 5월부터 중창불사를 시작, 진영각을 해체복원하였으며 응향각을 지난달 15일 역시 해체복원했다.

불자연예인 송년법회
14일 가든호텔

불교텔리비전이 연말을 맞아 '불교텔리비전 초청 불자연예인 송년법회'를 오는 14일 오후 6시 서울 가든호텔 무궁화홀에서 갖는다.불자연예인들의 단합과 연예인 불자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이번 행사는 1부 법회, 2부 만찬으로 이뤄진다.

국가재난 소멸기원 희생자 천혼국재

태고종 유가족등 2만명 참석

'국가재난소멸기원 및 희생자 천혼국재'가 태고종의 주최로 지난 8일 오전 11시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에서 봉행됐다.

1부 국가재난 소멸기원법회와 2부 희생자천혼재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국재에는 태고종, 종정스님등 종단간부, 스님, 신도, 성수대교 희생자 유가족등 2만여명이 참석, 국가적 난제를 함께 극복하자는 국민적 의지를 다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지난달 30일 청와대를 방문 일곱개항의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했다.

취임식도 하기전에 청와대를 방문한 것을 두고 교계에서는 '다시 친정부 불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스님의 방문은 건의서 제출이란 행정적 절차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우려의 소리를 일축시키고 있다.

대정부 건의서. 조계종의 건의서가 청와대에 접수된 것은 이번이 몇번째인가를 헤아릴 수 없을만큼 빈번했다. 그만큼 요구가 많았다는 얘기도 되고 정부측이 요구를 또 그만큼 안들어 줬다는 얘기도 된다. 이번 월주스님의 건의서 역시 새로운 것이 없다. 모두가 해묵은 것들이다. 해묵은 것들을 다시 신임 총무원장이 대통령에게 서한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것이다.

그만큼 불교계는 할일이 많고 또 정부측이 매끄럽게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2년 대선당시 김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들마저 이번 건의서에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목탁소리

임 연 태
(취재2부 차장)

'空約'을 公約으로

공약(空約)이 되어버린 공약(公約)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이미 닫힌 문을 두드리는 안타까움마저 자아내게 한다.

이 대목에서 불자들은 울분을 참을 수가 없다. '도대체 불교계를 어떻게 보길래'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제 조계종은 새 옷을 입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한 새 횡보에 앞서 취임식도 하기전에 청와대로 달려가야 했던 총무원장의 뜻을 정부는 의례적인 절차로 봐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종단의 입장이 절실하다면 그 여망이 다시 공전될때 수반되는 진통도 예상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건의서에 수록된 일곱가지 중 어느 하나 절실하지 않은 것이 없는 만큼 민족 문화의 근간을 이뤄왔고 미래 사회의 정신적 지주가 될 불교를 보는 정부의 눈도 달라져야 한다.

진리의 전화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구룡사 부설 인생상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혜의 문이 있습니다. 진리의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02) 579-3033

사과드립니다 지난주 본지의 제작과정에서의 실수로 오식이 많았던 점 사과드립니다.

불음 가득 · 법향 가득

책방 여시아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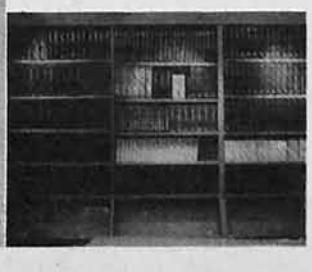


국내 최대의 불교 전문 서적만을 취급하는 서점입니다.
60여 평의 여유로운 공간에
국내외의 불교관련 서적으로만 3천 2만 여 종을 갖추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초심자에서 학자에 이르기까지
독자들 한분한분의 기대에 따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갈증을 풀어드립니다.
국내외의
서지정보(희귀본, 서적, 논문, 잡지) · 불교학술논문 · 불교문화예술정보 등
다양한 불교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이외에도
항상 불자 여러분의 공부에 충실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공간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가 배치, 컴퓨터 검색 체제,
그리고 언제라도 편안히 앉아서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의 만남과 함께 법향 듬뿍 음미할 수 있는 곳,
책방 여시아문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시아문은 불자들의 자랑입니다.
여시아문은 삼보에 귀의하는 서점입니다.
불법 홍포를 위해 회향하는 서점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세계화를 실천하는 서점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 33 · 전화 (대표) 737 - 8881 (서점직통) 737 - 0695 · 팩스 737 - 0696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9, 84, 159, 331, 588 - 2번

"이제는 희망이 보여요"

1급 장애인 안순자씨 40년만에 손 움직여

3년전 불법 인연 … 매일 관음 정근 끝에

'관세음보살' 정근 기도로 신체장애를 극복하는 불자가 있다.

분당 장애인 영구 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 안순자(40)씨.

안씨는 신체의 어느부분 하나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1급 지체장애인이다.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갑자기 사지가 굳어버렸고 가난한 살림에 치료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다. 홀어머니의 도움없이는 아무것도 먹을수 없고 움직이지도 못한다. 단지 생각하는 것만은 정상이어서 40년 세월을 한탄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희망없이 살던 안씨가 요즈음 새로운 삶을 살고있다. 관세음보살을 찾기 때문이다.

안씨는 매일 새벽 2시간씩 '관세음보살' 정근을 한다. 입술이 잘 움직이지 않지만 하루에 족히 1만번 관세음보살을 찾는다. 지난해 음력 3월 초하루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했으니 6백만번을 훨씬 넘겼다. 안씨는 정근 이외에 더이상 아무런 기도도 할 수가 없다. 다른 공부는 마음뿐 몸이 따르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온몸으로 기도하는 그녀의 발원은 '혼자서 밥먹고 화장실에 가는 것'.

"기도 시작 8개월째였습니다. 갑자기 손을 움직이고 싶더군요. 마침 옆에 있는 그릇의 과자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난생처음으로 그 과자를 혼자 힘으로 먹었습니다."

그날 안씨는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의지대로 움직였던 것이다. 죽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 문득 혼자서 살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고 사는것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씨가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것은 3년전. 재가복지활동을 펼치던 서울 방생선원 선재스님과 신도 신오숙보살을 만나면서 부터다. 당시 스님과 신보살은 안씨 집을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봄, 스님이 관음기도를 제안했다. 처음 접한 기도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몸이 따르지 않아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었다.

그러나 1주일에 한번씩 찾아오는 스님과 신보살의 정성에 안씨도 스스로 발심을 내었다.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순자씨는 1년 6개월 등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기도를 통해 몸을 움직일수 있다는 힘을 스스로 얻은 것입니다. 아직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수는 없어도 스님의 지도에 잘 따라주고 있어 발원 성취는 꼭 이루어 질 것입니다."

매주 서울에서 두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달려오는 신보살은 오히려 안씨가 '배울점 많은 훌륭한 도반'이라고 소개한다. 스님과 신보살은 안씨를 찾아와 기도노트에 관음기도를 체크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기도하기 전만해도 안씨는 자신의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아 짜증으로 살았었다. 신경이 예민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마음은 항상 불안했다. 남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안씨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피곤하면 그대로 잠에 들고 사람만나는 일을 좋아한다.

"나이 40에 제 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을렵니다. 단지 밥먹고 화장실만 갈수 있다면 만족합니다. 그때에는 마음속에 간직했던 시를 책으로 펴낼 수 있을 것이니까요. 이 발원은 부처님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날 회향 될 것입니다." 〈이준엽 기자〉



◇사지가 굳어 밥먹고 화장실 가는게 꿈이었던 안순자씨가 하루도 빠지지 않는 정근으로 몸이 움직이게 되자 평소 도움을 주던 신오숙 보살과 기뻐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새해 문화재 예산 7백29억원

금년보다 18% 증가 경천·원각사탑 보수 계획 빠져

내년도 문화재관리국의 예산이 지난 2일 7백28억7천3십2만6천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94년도 예산에 비하면 18%가량이 상향조정된 예산이다.

문화재관리국의 예산은 크게 기관운영, 고도정비, 문화재보존, 공능원정비의 네분야로 나뉘어 집행된다. 불교 문화재 보존·수리와 관련되는 문화재 보존 부분에 책정된 예산 4백77억5천7백1십6만9천원은 국·보물 문화재보수와 시도별 문화재보수국고보조사업에 쓰이게 된다. <관련기사 13면>

현재 문화재관리국이 파악하고 예산책정한 불교문화재 보호·보존 건수는 50여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훼손이 극에 달한 경천사탑과 원각사탑의 문화재 보수·보존 예산은 구체적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문화재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책정된 내년도 예산만으로 기존의 문화재 관리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북·해외 종교인 대회 열기로

종교인협, 내년 8월15일 평화통일 콘서트도

종교인 협의회(공동대표 지선스님, 김상근목사, 김헌교무, 함세웅신부)는 지난달 29일 봉은사 선불당에서 제8차 종교인협의회 대화모임을 가졌다.

종교인협의회는 이날 모임에서 95년도 통일사업을 논의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남, 북, 해외, 종교인 대회를 95년 8월 15일을 기해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불교,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의 종교인들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95년도 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해 △평화통일을 위한 남, 북, 해외 종교인 대표자회의 △6.25를 전후하는 평화통일 주간 미련 △평화통일 콘서트 △평화통일을 위한 남, 북, 해외 종교인 대회 미련등의 계획안이 확정 발표됐다.

33년차 회장 선출

17~18일, 대불련 정기총회

전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장혁)는 오는 17일 18일 양일간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제32년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각 지방 지부장과 대학회장 1백5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 평가회를 갖고 33년차 신임회장을 선출한다.

한편 대불련은 18일 대불련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회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교화단 준법사 품수식을 거행한다.

한·중·일 불교교류

북경서 준비모임 가져

내년 5월에 열리는 한·중·일 3국 불교우호교류대회를 위한 제 2차 준비 모임이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다.

이번 준비 모임에는 한국측에서 서봉(태고종 총무원장) 운덕(천태종 총무원장) 지광(진각종 통리원장)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시현(조계종 문화사회부장) 도흔(진각종 교육원장) 도원(천태종 총무부장) 스님 등이 참석한다.

종단협회장에 월주스님

지난 9일 만장일치 선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는 지난 9일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재단법인 설립인가 60돌

선학원, 부산서 기념자축연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정일스님)이 재단설립인가 60주년을 맞아 전국 분원장 1백70여명이 모인 가운데 부산 글로리 콘도에서 기념 축하법회를 가졌다.

이날 축하법회에 이어 김용택교수(동국대)가 사회복지에 대해 정광호교수(인하대)가 재단법인 역사에 관해 각각 강연했다.

새해 사업안 심의

대불청이사회

대한불교청년회(회장 배영진)는 지난 10일 11일 양일간 충북 중원군 수안보 조선호텔에서 제9차 중앙이사회의 및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번 이사회의에서는 94년도 사업결산과 95년도 사업 및 행사를 심의했다.

또한 대불청은 16·17대 중앙회장 임기중 불청 활동을 갈이했던 회원들을 위한 부부동반 송년회도 가졌다.

20일부터 특차모집

동대 입시요강 발표

종립 동국대학교는 내년 1월 2일부터 95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에앞서 특차모집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원서를 교부, 접수하며 29일 면접고사를 실시한다.

서울캠퍼스가 특차모집인원 63명을 포함 총 2천8백50명을, 경주캠퍼스가 특차 13명을 포함 1천9백50명의 95학년도 신입생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전기모집은 95년 1월2일부터 4일까지 원서를 접수 1월9일 전형을 실시하고 1월 10, 11일 양일에 걸쳐 면접고사를 치른다.

한편 95학년도부터 서울캠퍼스(야)에 신문방송학과, 광고학과, 중어중문학과등 3개과, 경주캠퍼스에 국악과, 사회체육학과, 국제관계학과 등 총 6개학과가 증설됐다.

동대생 10명에 장학금

경주 고불선원

경북 경주 소재 고불선원(원장 백운)은 지난 2일 대법당에서 제4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동국대 재학생 가운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불심이 돈독한 학생을 선발, 총 10명에게 각각 2십만원의 장학금을 전달 격려했다.

원장 백운스님은 "앞으로 재원을 확충해 대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르완다 난민에 성금

신탁은행 행우회

서울신탁은행 불교행우회(회장 김영태)는 10일 본점대강당에서 3백여명의 회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스님을 법사로 초청 창립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르완다난민돕기 보시금을 모아 동산반야회에 전달했다.

구독신청:737-8881

"건강한 가정·사회만들자"

영월군, 종교계 포함 모임구성 활동 펼쳐

영월군은 오는 15일 행정·민간단체 종교계 언론계 교육계 경제계 등 모든 군구성원과 함께 「건강한 가정, 건전한 사회 만들기」모임을 구성, 연말까지 홍보기간을 가진 뒤 새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키로 했다.

이 모임은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시켜 사회의 도덕적 병폐를 없애고 범군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 지원키로 했다.

「건강한 가정, 건전한 사회 만들기」는 우리사회가 급속하게 산업화 도시화 됨에 따라 도덕 윤리의식이 퇴조되고 생명경시와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정에서부터 먼저 지키기 위한 운동이다.

이 모임의 임원진은 박완영 군수를 대표로, 교육장 경찰서장을 부대표로 해 현오스님(보덕사 주지)등 종교계와 각 사회단체장 기업체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포교사 재교육 실시

전북지역 60명 참가

포교제도 개혁과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한 제4차 포교사 재교육이 지난 4일 전북불교회관 2층 강의실에서 개최됐다.

조계종 포교원이 미련한 이날 교육은 전북지역 포교사 6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지홍스님(금강정사 주지)과 송지호포교사(금마공수부대군법당 지도법사·회엄불교대학 4기)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날 송지호포교사는 '지역포교의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생활불교의 실현을 위해서는 스님과 신도와의 긴밀한 관계가 더욱 요청된다"고 강조하고 "각 사찰의 출입금지구역을 해제하고 사찰을 찾는 이는 포교사가 직접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이 실시한 포교사 재교육은 11월20일 서울 경기로 시작해 11일 광주 전남교육을 끝으로 회향했다.

골든 비디오상 수상

대정제작 '산사의 향기'

대정프로덕션이 제작한 비디오 영상포교자료 '산사의 향기'가 대한민국 영상·음반대상의 골든비디오상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일 국립극장.

교정기관 불자 연합회 창립

18일, 자매결연 직업훈련등 재소자포교 전개

전국 교정기관 불자회 연합회(회장 오희창,안양교도소 소장)가 오는 18일 안양 문예회관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정식 출범한다.

이날 창립하는 교정연은 전국 32개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 감호소)내에서 활동중인 불자회들의 연합단체로 지난달 1일 열린 전국교정시설 불교담당자 연수법회에서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창립을 준비해 왔다.

교정연은 창립 취지문에서 "재소자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자비정신으로 재소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혀 교정연 창립이 재소자 포교에 한층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정연은 앞으로 '재소자들의 불자화,재범율 제로화 운동'을 펼쳐 가며 이를 위해 △교정기관 포교사 파견 △재소자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직업훈련 활동지원 △출소후 취업알선 및 불우재소자 가족돕기 △재소자 복지사업 지원 및 연고자 지매결연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질병의 큰 원인은 "수맥"

발명 특허원 제 2273호

□ 제조허가번호 3-7-190
□ 공업진흥청 형식승인번호 전 3-7-5663
전 3-7-5664

遠赤外線 線狀發熱體 使用

수맥으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수맥방지용 건강매트 — 알파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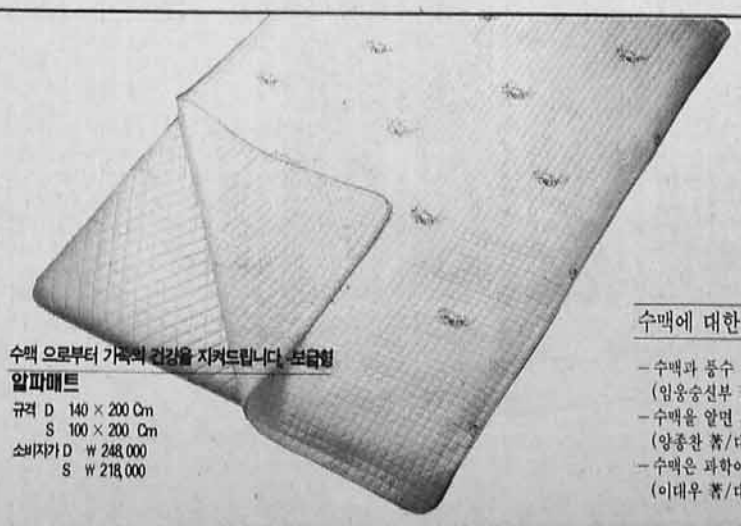
■■■■ 수맥을 무료로 봐드립니다. 부담없이 불러주십시오. ■■■■
■■■■ 수맥파를 방지하시면 하시는 일의 능률도 상승됩니다. ■■■■
■■■■ 특히 노인, 어린이, 수험생, 임산부, 환자들은 꼭 수맥을 방지하십시오 ■■■■

자매품

VIP 골드세트 수맥차단 원적외선 효과 음이온 발생 소비자가 ₩ 1,310,000 규격 140×200cm

골드카펫 수맥차단 원적외선 효과 음이온 발생 자카드 원단 소비자가 ₩ 765,000 규격 150×220cm

엔젤랜드 수맥차단 소비자가 ₩ 148,000 규격 100×120cm



수맥 으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보급형
알파매트
규격 D 140×200 Cm
S 100×200 Cm
소비자가 D ₩ 248,000
S ₩ 218,000

수맥에 대한 관련서적
- 수맥과 풍수 (임웅승신부 著/새남 출판)
- 수맥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양종찬 著/대광 출판)
- 수맥은 과학이다 (이대우 著/대광 출판)

* 전자파장해시험필
전자파장해시험원 EMI 공업진흥청

대리점 및 특약점 모집
● 모집지역
전국 (시, 군, 구, 읍 단위)
● 대리점 자격
보증금 없음
초도상품대 가능자(무점포 가능)
● 특약점 자격
판매 유경험자(초보자도 가능)
소자본·고소득(무점포 가능)
문의전화 (02)649-1781,645-8180

합명회사 자성기업
서울 강서구 등촌 2동 513-21 희원빌딩 301호
TEL (02)649-1781(대)/FAX (02)645-8180

이리후 건강칼럼 < 9 >

마 음

자기 변신

"약을 먹을때 뿐이지 약을 끊고나면 도로 증상이 더심해지니 약은 먹으나 마나합니다" 마음고생때문에 외래로 열심히 치료받으러 오던 환자가운데 이런 이유를 내세워 약먹기를 거부하는 환자가 있다. "약이 사람 마음도 고쳐주나요? 내 마음은 나밖엔 몰라요" 이런 호소를 하면서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환자도 있다. 이런



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다. 불가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환자에게서는 바로 내가 이것때문에 병이 났었구나하는 것을 깨닫는 "병식"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불가의 최상의 목표가 깨달음을 얻어 해탈에 이르고자 한다면 우리환자들의 목표는 자신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한 인식을 깨닫고 그로부터 벗어날 실행을 하는데 있다. 불가의 깨달음이 자비의 실천으로 드러나듯이 환자의 깨달음인 병식은 행동수정을 통한 자기변신에 있다. 그래서 약은 이 변신을 도울뿐 변신시키는 힘이 없다는 뜻이다. 정신과에서의 치료는 그래서 약도 필요하고 정신치료도 필요하다.

원인 살펴 행동 고칠 때 근치 가능

항번은 사람의 마음을 약으로 조종할 수 있느냐하는 강한 의문일 수 있다. 옛날에 비해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항정신병약이나 항우울제 항불안제와 같은 것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잘 선택된 약은 약만으로도 원상에 가까운 회복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이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조절하지는 못하리라는 추측은 어떤 의미에서는 옳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은 환자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다. 약은 환자에게 이런 도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 나름의 마음의 속사정까지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가령 학교입학시험에 떨어져서 화가 난 사람의 화를 진정시켜줄 수는 있지만 그 학생을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을 약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논리와 같다. 이런 마음의 고통으로 부터 벗어나도록 약의 도움을 받은 연후에는 반드시 상담이나 정신치료라는 일련의 치료를 이어 받는 것이 좋다. 정신치료를 통해 자신의 갈등의 원천을 통찰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신치료이다.

정신장애는 대부분 후천적인 생활습관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자

그날을 위하여

주부신행담

나의 시아버님은 4대 독자였다. 그래서 내가 시집을 갔을 때는 남편의 형제분들과 그들에게서 난 조카들뿐, 가까운 친척이라곤 없었다.

자손이 귀한 것을 어느 지관(地官)은 산소자리가 좋지 않아서라고 했다는데,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부모님은 조상님들 산소가 대구시에 편입이 되었을 때 이장하지 않고 아예 화장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어머님은 두 아드님을 탈없이 기르셨고, 우리 대에 와서는 큰 댁에 아들 넷, 우리집에 둘 해서 대대로 내려오던 소원을 유감없이 풀고 가셨다.

환갑 진갑 다 지나고 느지막이 불법에 귀의하게 된 어머님은 젊었을 때 못다한 공부를 한꺼번에 하시려는 듯 일념으로 수행 정진하셨다. 지옥중생이 단 한사람이라도 남아 있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誓願)을 한 '지장보살 마하살'의 명호를 하루에도 수만번씩 염했고, 즐겨 드시던 육류와 생선을 미련없이 끊었다. 기도에 들면 쌀과 솔잎가루를 물에 탄 생식으로 백일을 나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생전에 남의 고기 많이 먹었으니 내가 가거든 화장해서 뼈를 산이나 물에 뿌려 날짐승이나 물고기 밥이 되게 하라 하셨다.

어머니는 또 불법을 알지 못하는 자손들로 해서 당신의 49재를 당신이 걱정하셔야 했다. 10여년 세월을 용돈 아껴 모은 어머님의 성금, 그 저금통장을 앞에 하고도 우리는 그 속에 담긴 어머님의 염원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러나 49재를 지내며 당신의 극락왕생보다는 자손들을 부처님 문전에 인도하려고 하신 어머님의 심중을 조금은 알게 되었던 것이다.

지난 해 타계하신 친정어머니도 화장을 원하셨다. 그분은 계산이라는 것을 할 줄 모르는 분이었다. "내사 사후의 일은 걱정 안한다. 그런 돈 있으면 다 쓰고 갈란다"하시며 베푸는 낙으로 살다 가신 어머니.

어머니의 유골은 장례식날 곧바로 낙동강에 뿌려졌다. 행락객이 없는 겨울 낙동강은 조악돌을 알알이 셀 수 있을 만큼이나 투명했다. 스님의 독경 속에 당신의 외아들 손으로 한줌 두줌 뿌려진 어머니의 유골은 이별을 아쉬워하듯 잠시 물위에 떠있다가 조용히 가라앉으며 물결따라 천천히 흘러갔다. 낙동강도 한강도 하나로 어우러지는 바다를 향해서.

흰구름이 무심히 떠 있는 하늘을 보며 나는 어머니가 즐겨 읊던 '生也一片浮雲起/死也一片浮雲滅'이라는 시구를 떠올렸다. 이제 한줌의 재로 남은 어머니는 더러는 물고기의 밥이 되고 더러는 흙으로 가라앉으며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생(生)을 구름 일어남이라 하고 사(死)를 멸함이라 한다면 이보다 깨끗한 소멸은 없으리라 싶었다. 나 또한 그렇게



나무잎은 단풍이 찬란하다고 하는데 …

흔적도 없이 가기를 바랐다.

문득 오래전에 본 어느 바다가 떠올랐다. 수심이 열발도 넘는다는 그 바다는 물이 어떻게나 맑은지 마냥 걸어 들어가고픈 유혹을 느끼게 했다. 이대로 영영 나오지 못한다 해도 후회될 것이 없을 것 같았다. 그 속에 잠들고 싶다고 그때 나는 원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굳이 그 바다를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 몸 벗어버리면 그 또한 부질없는 일일 것이다.

부모님도 큰댁의 형님 내외분도 가시고 보니 명절이 와도 찾아 뵐 어른이 아니 계시다. 머리에 찬 바람이 분다. 어른이 안계시다는 것이 이렇게 추운 것인 줄 몰랐다. 이제 나의 겨울이 멀지 않았음이라.

해거름에 약수터에 오르니 간밤의 비로 낙엽이 수북하게 깔려 있다. 누르스름하게 퇴색한 낙엽을 밟으며, 간다는 것이 별 게 아니라 이렇게 낙엽되어 흙으로 돌아감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정해진다. 어느 날인가는 나도 낙엽되어 떨어지리라.

나는 어머님들처럼 바르게도, 어질게도 살아오지 못했다. 누구를 위해 내 마음 한 자락을 나누어 주는 일 없이 작은 내 것을 지키기에 바빴다. 그런 내가 그분들처럼 미련없이 떠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얼마나 주제넘는 욕심인가. 아니, 그러기에 나의 남은 날은 더욱 소중한지도 모른다. 나무 잎은 푸른 빛이 선명했던 만큼이나 단풍이 찬란하다고 하는데 ….

계절을 재촉하는 낙엽은 지금이 순간도 쉬지 않고 떨어지고 있다.

한정덕행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 선생경 ③

'How then, sir, in the discipline of the Ārya, sould the six quarters be worshipped? It would be an excellent thing, if the Blessed One would so teach me the way in which according to the Discipline of the Ārya, the six quarters should be worshipped.'

그러면, 부처님, 성인들의 수행법에서는 육방에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저에게 성인의 수행법에 따라 육방에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참으로 좋겠나이다.

'Hear then, young householder, reflect carefully and I will tell you.'

그러면 젊은 장자여, 듣고 깊이 숙고해 보라, 내가 말해 주리라.

'Yes, sir,' responded young Sigāla. And the Blessed One said: 'Just as, young householder, the Āryan disciple has put away the four vices in conduct;just as he does no evil actions from the four motives;just as he does not make towards the six doors of dissipating wealth;avoiding these fourteen evil things, he is a guardian of the six quarters, is on his way to conquer both worlds, is succesful both in this world and in the next. At the dissolution of the body, after death, he is reborn to a happy destiny in heaven.'

'그리 하겠나이다, 부처님.' 젊은 시갈라가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 장자여, 성인의 제자가 행위에서 네가지 악을 제거하고, 네가지 동기에서 비롯되는 네가지 악행을 하지 않고, 재물을 낭비하게하는 여섯 문으로 가지 않듯, 이 열네가지의 악업을 피하면 그는육방을 지키는 자이며, 두 세계를 정복하는 길을 가는 자이며,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도 성공을 얻으리라. 죽은 후, 육신이 다하면 그는 천상에서도 복된 운명을 받고 태어난다.'

'according to: ~에 따르면, ~에 따라서
'disciple: 제자, 문하생, 신도
'dissipate: 흩어지게 하다, 낭비하다

〈박미영 기자〉

깨우친 목석보 다는
자비심 있는 중생이 더 아름답다.

한마음 요전
대행스님 구도행장 · 법어집
· 목숨을 건 십여 년의 치열한 구도행장
· 장경의 숲을 가로지르는 명쾌한 법어
대행스님께서는 '말'속에 '장경' 속에 갇힌 불법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불법은 곧 삶이요, 삶은 곧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 기획 · 편집 : 한마음선원
· 제작 · 보급 : 도서출판 여시아문
☎ 02)737-0695

金字書畵 大報 부모은중경 반야심경양면10폭 병풍
부처님께서 설하신 살아있는 인륜대도 병풍, 불교의 효도일 우란분절(백중일)의 의미를 승화한 기념佛事,
자녀결혼 예단품으로…낳아서 지켜주신 은혜의 보답으로…영험높은 경전병풍을 가정에 모시면 모든 뜻을 이루십니다.


▲ 전면(부모은중경)
▲ 후면(반야심경)

신청자 참고사항
조성된 성품은 목련존자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참으로 행하여 그 공덕으로 어머님을 지옥의 고통에서 구하셨다는 크나큰 효심을 자녀들에게 깨우치며 삼라만상의 이치가 설파된 반야심경을 사경하여 바른 신행생활을 돕고자 한들한들 불심으로 포교하오니 佛子님 가정에 모시고 수행정신하시면 일체액을 멸하고 소원성취하십니다.

● 전면 : 불설대보 부모은중경(수원 용주사 목판본)
1. 회탐수호은(懷貪守護恩) 잉태하고서지켜주신은혜
2. 임산수고은(臨産受苦恩) 해산하실때고통받으신은혜
3. 생자망우은(生子忘憂恩) 자식을낳고서근심을잊으신은혜
4. 인고토감은(咽苦吐甘恩) 쓴것을삼키시고단것을 뱉아먹여주신은혜
5. 회건취습은(廻乾就濕恩) 진자리마른자리가려눠어주신은혜
6. 유포양육은(乳哺養育恩) 젖을먹여주시고키워주신은혜
7. 세탁부정은(洗濯不淨恩) 깨끗하지않은것을씻어주신은혜
8. 원행억념은(遠行憶念恩) 멀리길을떠난자식을걱정해주신은혜
9. 위조악업은(爲造惡業恩) 자식을위해서모진일도서슴치않으신은혜
10. 구경련민은(究竟憐愍恩) 최후까지자식을연민히여기시는은혜

● 후면 : 반야심경(직접사경한 육필)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의 약칭. 5온(蘊), 3과(科), 12인연(因緣) 4체(諦)의 법을 들어 온갖 법이다 공(空)하다는 이치를 기록하고 이 이치를 깨달으면 일체 고액을 면한다고 하는 부처님 말씀으로 많은 불자가 널리 독송하고 있는 크나큰 영험이 있는 경이라 전함.

■ 주문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접수순으로 약 10일내에 전달하여 드립니다.
(· 현금 일시불 · 신용카드 일 경우 3~18개월 분할가능)

작 품 : 양면공단 金字書畵
규 격 : 높이 5.77尺, 폭15尺
최고급스기목(수입목재)

■ 포교가격 : ₩480,000
증정 : 우리말원색도해 부모은중경 1권
우리말 "반야심경 해설경책1권"

한국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三 田 佛 事 포교원
■ 문의처 : 732-6096, 735-5293